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국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세상
하나 된 건축사가 만들어 가겠습니다

회원지원센터
Tel 02)3415-6840
Fax 02)3415-6898
kira100@kira.or.kr

ISSN 2636-1078

2006년 9월 9일 창간 안내 (02)3416-6962~6 ancnews.kr 제404호 2023년 8월 24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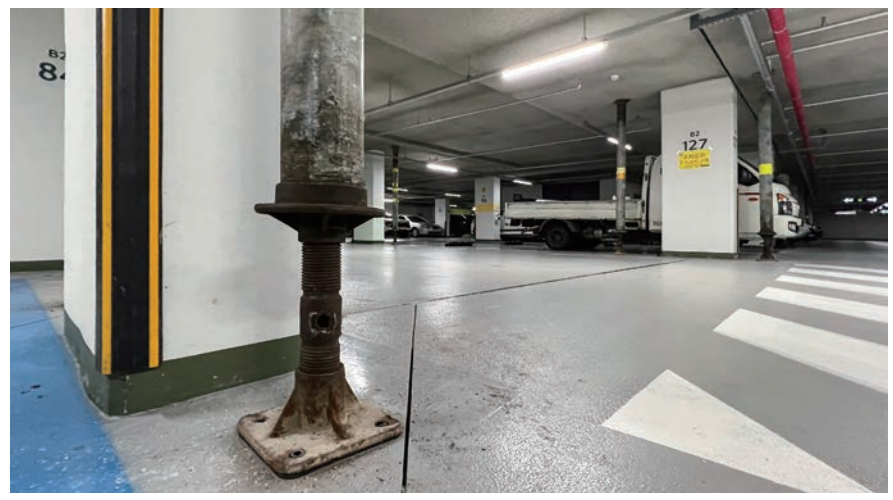
공사비 절감 목적 부실 자초하는 'CMR' 제도 자체 재검토 및 감리 독립성 강화 필요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

다른 의제에 가려 상대적으로 소홀한 시공문제 제도개선 선행 필요

현장에 비해 시공인력 적게 배치되는 것도 문제…배치기준조차 없어

시공단계별 설계자 확인제도 보완 통해 감리 강화해야



경기 남양주시 별내동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잭서포트가 설치돼 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자체 조사 결과, 2017년 이후 무량판 구조로 지어진 아파트 102개 단지 중 20곳에서 전단보강근이 누락된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사진=뉴스1)

이번 LH 사태를 두고 건축사를 비롯한 관계자들은 설계·시공·감리 전 분야를 망라한 산업 전체를 일신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이 높다.

전문가들은 이번 LH 아파트 문제가 '건축구조계산, 도면작성, 시공, 감리' 과정에서의 여러 문제가 총체적으로 반영된 구조적 문제로, 보다 근본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이유는 전단보강근이 누락된 곳이 한두 곳이 아니기 때문이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자체 조사 결과, 2017년 이후 무량판 구조로 지어진 아파트 102개 단지 중 20곳에서 전단보강근이 누락된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지난 8월 18일 〈이데일리TV〉에 출연해 이번 LH 사태에 대한 진단과 대안을 제시한 대한건축사협회 박성준 부회장은 "문제가 되는 현장 비율이 많다라는 건 구조적 문제로서, 원인이 좀더 큰 데 있다는 반증"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잇단 건설현장 사고 원인 중 하나로 감리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선 "감리 독립성 강화와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제도 전면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시공단계별 설계자의 확인제도 보완을 통한 감리 강화 ▲LH 발주 역할 분리 및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에 따른 '건축진흥원'을 통한 설계·감리 발주 관리를 꼽았다.

≫ 3면 계속

9월 26일 '건축사 민간대가기준 마련' 국회 토론회

건축사 업무실태와 적정대가 및 건축서비스산업 정상화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 목적, 김학용·김수흥 국회의원 주최·주관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오후 2시 열려

의무가입 시대가 본격 개막한 가운데, 건축사 업무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으로서 민간발주사업에 대한 합리적 대가기준 마련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열린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학용, 김수흥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주관하는 '건축서비스산업 정상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가 오는 9월 26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

민간 발주 사업에서 덤핑 수임과 최저가 낙찰 관행이 지속돼 건축사업계 업무환경이 취약할 대로 약해진 형편이다. 이는 건축 전공 졸업생들의 인력 이탈로 이어져 건축사업계는 인프라 붕괴 위기를 맞고 있으며, 저가 설계는 부실 설계로 이어져 최근 LH 사태처럼 시공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건축서비스산업 정상화 방안으로서 '건축사 업무실태와 적정대가'와 관련한 발제와 토론이 이뤄진다.

한국건축정책학회 이명식 회장이 '건축서비스산업 정상화 방안(건축사 업무실태와 적정대가)'를 주제로 기조발표를 한다. 패널로는 대한건축학회 진상윤 부회장을 좌장으로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김규린 위원, 대한건축사협회 박성준 부회장, 한국건축가협회 한영근 부회장, 한국건축설계학회 이준석 회장,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송태협 건축연구본부장 등 정부 및 건축계 산학연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할 예정이다.

장영호 기자

월간 건축사지 9월 호부터 전국 온·오프라인 서점에서 구매 가능

정회원 대상, 9월·10월 부록으로 '건축법령 질의회신집'·'건축분쟁 사례해설·소송판례집' 무료 배포

대한건축사협회가 발행하는 월간 건축사지를 이제 앞으로 교보문고와 YES24 등의 국내 주요 온오프라인 서점에서 만나볼 수 있다. 건축사지는 대한건축사협회 회원지로 1966년 창간돼 지금까지 50년 넘게 우리 건축문화를 발전시켜온 건축작품과 이를 창조해낸 건축사를 소개해왔다. 이제 앞으로는 건축에 관심 있는 일반 대중들 누구나 주요 온·오프라인 서점에서 건축사지를 구매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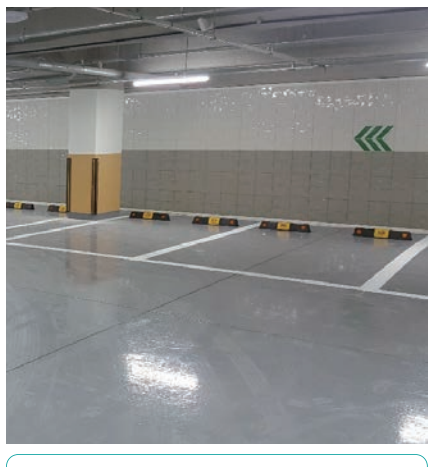
대한건축사협회는 월간 건축사 9월 호부터 교보문고, 영풍문고, 인터파크, YES24 등 전국의 주요 온·오프라인 서점에서 구입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협회는 이를 통해 건축사가 일반 대중들에게 쉽게 다가가 건축 전반에 대한 이해 증진과 인식 제고를 이끌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내년 초에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원하는 '우수콘텐츠잡지' 선정 신청에도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협회는 정회원을 대상으로 건축사지 9월 호·10월 호 부록으로 '건축법령 질의회신집(이하 질의회신집)'과 '건축분쟁 사례해설·소송판례집(이하 사례해설집)'을 각각 무료 배포한다.

≫ 3면 계속

혁신적 방재형 주차장 바닥 마감 시스템 지하주차장 화재로 인한 인명, 재산 피해 방지

Dia QN-1000 System : 세라믹계 수용성 준불연 수지 / 바닥마감재



특허증

준불연 인증

PMC 싱그러미 : 콘크리트 구조물의 염해, 중성화, 발수 및 부식열화방지 외부 수성페인트
PMC-PUW 구름이 : 에폭시 변성 폴리우레탄수지계 방수공법
PMC-EPF 깔끄미 : 우레탄 변성 에폭시수지계 바닥마감공법
PMC-PUAⓌ : 에폭시 변성 폴리우레아수지계 옥상방수용
PMC-PUAⓕ : 에폭시 변성 폴리우레아수지계 바닥마감용
PMC-PUAⓟ : 에폭시 변성 폴리우레아수지계 수처리구조물 방수용
PMC-PUAⓡ : 친환경 폴리우레아폭시 미끄럼방지재

준불연성
• 화재로 인한 화염전파 방지효과 탁월 : 인명 및 재산 피해 방지효과
• 공인시험기관 시험성적서 인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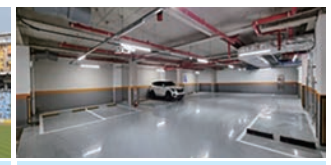
물리적 성능
• 기존 용제형 제품 대비 탁월한 물리적 성능 발현

수용성 바인더와 무기나노물의 점진적 커플링 융화 반응
• 시간 경과에 따른 획기적인 물리적 성능 향상
• 기존 수성 재료의 태생적인 물리적 성능의 한계를 극복

환경 친화성
• 물을 용제로 사용 : 희석제(신너) 미사용
• 극 저취형 : 시공 중에 냄새 없음

적용부위

대형체육시설 주차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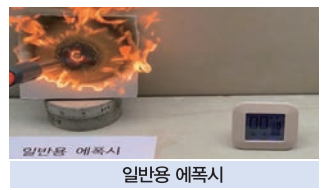


공동주택주차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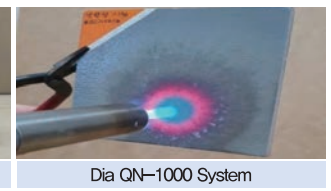
대형마트,백화점,병원,호텔 주차장

물류창고

비교시험



일반용 에폭시



Dia QN-1000 System

PMC (주)피엠씨 | www.pmc-eng.co.kr (주) 다이아몬드 DIAMOND | 대전광역시 중구 뿌리공원로 35-1, 부성빌딩 3층 T. 042-585-6619 F. 585-2050 http://www.diacoat.co.kr/

사 설

구조를 계획하는 것과 구조를 계산하는 것

해외 건축사들의 독특한 건축 작품들을 살펴보면 설계과정의 모든 것을 건축사가 담당하는 경우도 있지만, 건축사의 설계의도에 따라 구조엔지니어가 그에 맞는 가장 합리적인 구조를 제안하고 기술적인 해결을 하는 경우를 보며 특별한 인상을 받는다. 하나의 사례를 살펴본다면 요른 웃존 Jørn Utzon의 시드니 오페라하우스가 구조엔지니어 오브 아룹 Ove Arup에 의해서 1957년부터 1963년까지 다양한 구조방식을 검토한 끝에 지금의 형태로 만들어진 것이다.

설계과정에서 건축사와 구조엔지니어가 얼마만큼의 업무를 분담할지는 건축물의 규모와 용도 그리고 공간의 구성에 따라 다를 수 있겠으나, 앞서 언급한 사례의 경우 매우 특별한 형태를 구현하는 경우이며, 구조체의 형태가 곳곳에서 보여지며 이것이 마감이자 디자인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경우 건축사와 구조엔지니어가 별도로 계약되어 업무를 하는 것이 맞을지, 긴밀하게 소통하며 공간의 구축을 통해 디자인의 의도가 잘 표현되도록 하는 것이 맞을지 질문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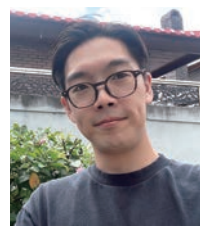
일반적인 건축물의 경우에 지금까지 건축사가 업무를 총괄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이유는 법적인 책임 문제를 뒤로 하고서라도, 다양한 건축적인 요소들이 공간 속에 만들어졌을 때 어느 부분에서 골조와 설비가 교차되며 필요한 높이를 확보할 수 있는지 등을 확인하는 주체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이를 통해 설계의도가 구현되며 건축 디자인이 완성되도록 하는 것을 이끌어가는 역할을 건축사가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건축과 구조를 분리발주 하도록 하는 주장에 대해서는 건축에서 구조를 빼면 과연 그것이 건축인지, 실제의 건축물에서 구조체를 빼면 어떻게 되는지를 질문하고 싶다. 다른 설비분야의 도면은 별도로 구성하고 제본하는 경우도 있지만, 건축도면과 구조도면은 함께 살펴봐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건축설계를 진행할 때 많은 경우 기둥과 벽체가 배치될 중심선을 그리는 것으로 시작하고, 단면에서 공간의 형태와 높이를 파악하며 보와 슬라브를 '계획'한다. 이렇게 계획된 구조에 대해서 사이즈를 조절하거나 철근량을 조절하여 기준이 되는 사항을 충족시키는 과정이 구조'계산'이다. 경우에 따라 구조'계획'을 건축사가 주도하는 경우도 있는가 하면, 앞서 언급한 사례처럼 구조엔지니어가 설계자의 의도에 맞춰 구조'계획'을 수행하는 경우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구조계획이 건축사의 업무에 이미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며 건축에서 구조를 따로 떼어놓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구조기술사회와 논쟁을 하려는 것은 아니다. 좋은 건축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건축사와 구조엔지니어가 더욱 긴밀하게 소통해야 한다. 업무영역을 분리하려는 것은 소통이 어려워지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한 변화보다는 업무대가가 현실화되는 것을 통해 적절한 보상을 받으며, 설계대로 현장에 반영되어 아름답고 안전한 건물이 완성되어 전문가로서 사회적인 인식과 대우가 좋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시 론

실효성 없는 기존 건축물 건축규제 재검토해야



임광수 건축사
광 건축사사무소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작업도 가치 있지만 기존건축물 활용하는 작업도 건축사의 가치있는 작업

기존 건축물에 적용해야 하는 새로운 규제 및 법규들 현장에 맞도록 적용기준 개선 필요해

코로나 시국이 지나고 건축경기가 힘든 요즘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하면서 여러 생각을 하고 많은 걸 배우는 중이다. 사실 개업할 때 가지고 있던 꿈과 이상은 현실과 많이 달랐다. 막연한 자신감으로 건축물을 멋지게 디자인해서 작품을 만들어야지, 라는 생각으로 호기롭게 시작했지만, 수주능력이 뒷받침돼야 이 모든 게 가능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는 빈 땅에서 새롭게 건축의 가치를 만드는 것이 건축사의 역할이라 생각하고, 많은 것을 보고 답사, 준비하면서 수주를 위해 많은 노력을 쏟았다. 하지만 개업한 지 얼마 안 된 건축사에게 프로젝트 수주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지금 생각해 보면 무모하게 사무소를 시작한 건축사사무소 개업이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시간이 점차 지나고 조금씩 다양한 프로젝트들과 연결되며 신축 인허가들을 진행하는 성과가 있었다. 코로나 유행 이후에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신축보다는 증축, 대수선, 용도변경같이 기존 건축물을 활용하는 건축행위들이 많아졌다. 지금은 이러한 일들이 사무소 프로젝트 대부분을 차지한다.

기존 건축물 프로젝트는 신축에 비해 서류 행정업무가 더 많다. 디자인보다는 인허가 절차에 시간을 더 할애하게 된다. 또한 기존 건축물에 법규를 어느 부분까지 적용을 해야 할지, 기존 건축물의 불법사항 체크 및 대장과 현황이 맞는지 등등 현장 체크와 더불어 허가 담당자와 무수히 많은 협의들을 해야 하며, 모든 진행들이 복잡하게 진행된다. 게다가 건축주에게는 기존 건축물에 새롭게 적용해야 하는 법규들을 설명해 이해시켜야 한다.

아시다시피 클라이언트가 가지고 있던 건축물의 가치를 더욱더 높이는 것도 건축사가 해야 할 중요한 역할 중 하나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도 굉장히 가치 있지만, 오래된 건축물을 현행 법규 안에서 새로운 용도에 맞게 다듬고 더욱 빛나게 그리고 안전하게 만드는 것도 건축사가 해야 하는 가치 있는 작업이라고 생각한다.

요즘 경기를 보노라면, 몸소 체감하는 것들이 적지 않다. 첫 번째로 허가권자 지정 감리가 현저히 줄었으며, 건축물 일부 해체 관련 문의가 많아졌다는 점이다. 두 번째 평소 건설회사와의 협업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건설회사 역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신축현장이 다수였지만, 점점 대수선과 해체 관련된 현장이 늘고 있다. 그에 따라 신축에 비해 챙겨봐야 할 서류 및 안전 관련 절차들이 많이 늘어나는 추세다. 서로 다른 각각 현장 특성에 맞게 검토를 해야 하며 건축사분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고 실제 공정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확인 후 도서 및 서류를 작성해야 한다.

이처럼 여태껏 늘 하던 건축 관련 일들이 점점 복잡해지고 건축경기의 흐름에 따라 점점 기존 건축물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바뀌면서 건축사들의 역할이 더욱더 무거워지고 있음을 느낀다. 다만 사건 사고가 많은 요즘 급작스럽게 변하는 법규와 규제들을 기존 건축물에 적용하기에는 여러 어려움이 있다. 이런 이유로 건축을 포기한 클라이언트도 있었으며, 무산된 프로젝트들도 다수다.

안전 관련 법규 및 규제들은 필히 적용해야 사항이지만, 지금 당장 현실적으로 적용할 수 없는 법규들은 보다 디테일한 적용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실효성 없는 규제를 남발하는 것보다 꼭 필요한 규제를 정해 시행하고 철저히 단속해야 정책에 신뢰가 생기지 않을까. 이와 관련한 회원분들의 많은 의견이 수렴돼 관련 제도가 개선되기를 바란다.

▶1면〈감리 독립성 강화...〉에서 계속

현재 건축설계 자정 노력으로는 대형사의 도면하청 근절을 위한 설계도서 작업자 실명제와 착공도서 검토제 또는 착공도서 기술심사제 등의 실시 등이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LH 사태 대책 마련에 있어 설계와 감리문제가 거론되며 정부·국회에서 대안이 한창 논의 중이지만, 전문가들은 실제로는 시공 관련 문제가 사실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제도 변화가 선행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한다. 설계·감리 의제들에 가려져 상대적으로 시공분야가 소홀히 다뤄지고 있다는 비판이다.

특히 인천 검단 LH 아파트의 경우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CMR)'가 적용된 현장인데, CMR은 시공사가 설계단계부터 참여하는 사업방식으로 원가절감이 주된 목적이다. 시공사가 상당한 권한을 갖고 설계단계에서부터 조정 역할을 하게 된다. 이는 공사비를 줄이려다 부실을 자초하는 격으로, 안전 측면에서 설계·시공·감리 삼권 분리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CMR 제도 자체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게 관계자들의 의견이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시공현장에 인력이 너무 적게 배치되는 것도 문제로 거론된다. 좀 더 구체적으로 현행 법령상 감리분야는 배치기준이 존재하지만, 시공은 배치기준 자체가 없다. 현장에 가보면 시공인력보다 감리자·감리원이 더 많다고 현장관계자들은 지적한다.

서울시 A 건축사는 "지금 LH 문제를 설계와 감리 문제로 편향돼 시공 제도 자체에 대한 논의가 부족한 경향이 있다"며 "시공계획서의 사전심의제나 허가제 같은 것들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 인천광역시건축사회장 류재경 건축사는 최근 〈대한경제〉 기고를 통해 작금의 상황에선 "진심 어린 사과와 안전대책 수립이 최우선"임을 밝히며 "전문가라면 이번 사태를 업역확대 기회로 삼을 것이 아니라 설계·시공·감리 전 분야에 걸쳐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확립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고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영호 기자

당선 욕심에 사전접촉 시도 횡행…"유착 의심·사전접촉 등 비위발견 시 발주기관에 알리고, 협회 건축부조리신고센터에 신고해야"

▶ 최근 건축 설계공모 사전접촉 사례

제주도 서귀포여고 그린스마트스쿨 설계공모('23.06.16)	서울시 디지털금융지원센터 건립 설계공모('23.6.16)	부여 소부리 커뮤니티케어센터 설계공모('23.7.17)
심사위원 예비포함 8인, 심사당일 심사위원 3인이 사전접촉 있었다고 발언, 그에 따라 조사 통해 6개 업체 탈락 조치	1차 심사 결과 발표 시 참가자 HS-03227가 사전접촉으로 심사 제외 공지	심사위원 3명에게 2개 팀이 접촉 시도, 심사 당일 발주처가 이를 확인, 해당 팀(안) 심사 배제하고 PT 위해 대기 중이던 발표자 돌려보냄

"심사 전 사전접촉 등 로비는 범죄…세금으로 심사위원 배 불려서야"

경기위축으로 최근 설계공모 100여 개 업체 참가등록 예사

▲ 제주도 서귀포여고 그린스마트스쿨

▲ 서울시 디지털금융지원센터 건립

▲ 부여 소부리 커뮤니티케어센터 설계공모에서 사전접촉 적발돼

협회, 발주·심사 전 과정 체계적 지원·혁신 위한

"'설계공모지원센터, 공정거래모니터링센터' 운영 정부에 제안"

▶ 윤리규정 제29조(설계공모) 조항

제29조(설계공모) 공공 또는 민간의 설계공모에 참여하는 건축사는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며, 공정하고 정직하게 행동해야 한다.

1. 건축사는 합리적이고, 투명하며, 공정하게 운영되는 설계공모에만 참여하여야 하며, 참여 중에 불공정한 사실이 발견되면 즉시 참여를 철회하거나 불공정한 부분을 바로 잡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불공정한 유형은 다음을 포함하나 이에 제한되지 않는다.
   가. 설계용역비 혹은 공사비 과소 : 공공건축물 설계용역비 혹은 공사비 대비 지나치게 낮은 경우
   나. 불공정 진행 및 심사 가능성 : 공모 내용, 절차 및 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심히 손상된 경우
2. 건축사는 본 윤리규정에 어긋나는 설계공모에는 참여하지 않는다.
3. 공공과 동일하게 민간의 설계공모에 있어서도 심사위원 사전접촉 금지, 이해관계에 따른 회피신청 등의 규정과 절차를 공정하고 정직하게 이행해야 한다.
4. 기획업무, 자문, 심사에 참여한 건축사는 관련된 기밀을 엄수하며, 관련하여 금품 수수나, 이권개입 등의 행위를 하지 아니 한다.

경기도 A 건축사는 최근 모 지자체 설계공모 참가등록을 했다가 화들짝 놀랐다. 참가업체 수만 100여 개가 넘었기 때문이다. 이 같은 과열경쟁이 빚어지는 것을 두고 A 건축사는 "건축경기가 얼어붙은 가운데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시그널'을 보여주는 것 같다"고 했다.

올해 건축설계공모는 민간경기 침체로 예년보다 공공건축 의존도가 높지만, 공공부문 설계발주가 줄면서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건축 설계공모를 둘러싸고 "최근 눈에 띄게 로비가 극심해지며, 혼탁해지는 분위기"라고 입을 모은다. 익명을 요구한 관계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심사위원 사전 접촉이 금지돼 실격이지만, 일부 심사위원의 자질 부족과 일부 건축사사무소의 당선 욕심에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심사위원들이 사전접촉 시도가 이뤄진 것을 발주기관에 신고해 적극적으로 대응한 사례가 있어 주목받고 있다. ▲제주도 서귀포여고 그린스마트스쿨 설계공모 ▲서울시 디지털금융지원센터 건립 설계공모 ▲부여 소부리 커뮤니티케어센터 설계공모가 그에 해당한다. 해당 설계공모 모두 심사위원들이 사전접촉이 있었다고 발언, 발주기관에 신고해 심사위원회가 재구성되거나 참여업체가 심사에서 제외됐다.

대한건축사협회 윤리규정 제29조(설계공모)에 따르면, "심사위원 사전접촉 금지, 이해관계에 따른 회피신청 등의 규정과 절차를 공정하고 정직하게 이행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를 위반한 회원은 경고, 회원권리정지 또는 제명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대한건축사협회 부조리신고센터 담당자는 "심사위원이 참가업체로부터 전화 등 설계공모 사전접촉 비위행위가 있을 경우, 발주기관에 알리고 이를 부조리신고센터에 접수할 시 조사위원회를 거쳐 절차에 따라 징계 등 조치가 취해진다"고 설명했다.

한편 협회는 건축계의 고질적인 병폐인 설계공모 불공정을 바로잡기 위한 시스템 구축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LH뿐 아니라 국내 모든 발주기관에서 진행하는 건축 설계공모 통합 운영으로 제척 시스템이 작동할 수 있게 하고, 발주·심사 전 과정과 방식을 혁신하기 위해 그간 추진 중단된 건축진흥원 설립·지정에 따른 '설계공모지원센터 및 공정거래모니터링센터' 설립을 정부에 제안한다는 계획이다.

장영호 기자

▶1면〈월간 건축사지...〉에서 계속

질의회신집은 국토교통부 감수를 받아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를 수록했으며, 사례해설집은 자문 변호사의 법적 자문을 거쳐 건축 현장에서 실제 발생한 주요 분쟁사례에 대한 대법원 판례에 근거해 건축분쟁의 쟁점과 해법을 실무자 입장에서 기술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다.

건축물에너지 효율 관련 인증제도 통합 가시화

민간건축물 제로에너지건축 위한 에너지 관련 설계기준 강화

제로에너지건축물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 통합 방안이 구체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건축사, 시공자, 인허가 담당자들이 모여 건축물 에너지효율화 관련 정책에 대한 논의의 장도 마련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은 건축물 에너지 인증제도 통합 등 변화되는 효율정책 방향을 안내하기 위해 8월 18일부터 전국 6곳에서 '건축물 에너지효율화 관련 정책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통해 부처별로 다른 건축물에너지 관련 인증제도를 통합하는 것은 물론 에너지 관련 설계기준을 강화키로 한 바 있다. 설명회는 건축사, 건축 인허가 담당자, 시공사, 친환경 컨설팅사 등 이해 관계자에게 변화하는 건축물 에너지효율화 관련 정책을 설명하고, 다양한 의견을 논의하기 위해 6개 권역(서울, 대전, 부산, 광주, 경기, 제주)에서 개최된다. 이 자리에선 제로에너지건축물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 통합 세부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안내하고, '25년 이후 시행될 예정인 공공건축물의 의무취득 인증 등급 상향과 민간건축물의 제로에너지건축을 위한 에너지 관련 설계기준 강화 방향 등을 공유한다. 아울러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취득할 계획이 있는 건축주를 위해 에너지 최적화 컨설팅 지원사업에 대해 소개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한다. 컨설팅 지원사업은 소형 공공·민간 건축물을 대상으로 건축·기계·전기·신재생 설비에 대한 요소기술별 분석과 통합분석을 통해 최적 대안·공사비 최적화·에너지 자립률 향상을 지원한다. 또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취득에 따른 인센티브와 연간 에너지비용 절감에 따른 투자회수기간 산출을 통해 인증 취득을 유도하고 있다. 정책설명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에너지공단 건물에너지실(02-6362-2021)로 문의하면 된다.

아키엠 건축사필수앱
3,000 건축사 사용중 !
허가권자지정, 상주, 해체, 석면 올인원!!
지역건축사회 특별특별 할인 친절상담 02 3462 1336

최고급 미끄럼방지 바닥재, 피쳐플로어링
적용처 주방/화장실/샤워실/수영장/보행로 (호텔, 병원, 식당, 단체급식소, 레스토랑, 복지시설 등)
환경부 환경 마크 획득 대한건축사협회 추천 우수건축자재
기존 바닥 철거없이 바로 시공!
빠른 경화시간으로 다음날 사용가능!
조달물품식별번호 23863872 상담문의 : (02)461-3000 www.FFR.co.kr
대표시공처 KT/Naver/POSCO/CJ/국방부/교육청/서울대병원/중앙대병원/농협/축협/법무부/두산중공업/63빌딩/롯데월드/한화리조트/경기도의료원/서울대공원/서울메트로/충남대병원/충북대병원/적십자병원/SK하이닉스/한화/한국수력원자력/한국철도공사/정부청사/시도청사/전국초중고등학교 외 다수
Feature Flooring

흙막이(굴토공사)설계.지반조사.감리 상주 비상주
지하안전영향평가(소규모포함)
건축물내부확장공법 〈특허공법-흙막이(C.I.P)가 영구 지하벽체를 대체하는 경제적인공법〉
(주) 양광엔지니어링 . (주)선샤인이엔씨
토질및기초기술사.공학박사 오민열 HP 010-5271-1977
경기도 안양시 관악대로 404번길 9, 2층 T. 02-2293-6800, F. 02-2299-1881
e-mail : sunenc2299@chol.com / webhard id : sunenc pw : 1234

건축사공제조합 위원회 합동 워크숍 개최

위원회 활동 강화, 사업의 성공적 수행, 조합원 이익 극대화

▶ 건축사공제조합 '중단기 세부 실천방안'

조합 위상 강화	수익 향상	조합원 편익 및 복지
1. 법 제도 개선 2. 협회와의 상호 협력 3. 홍보활동 강화	1. 공제시장 점유율 확보 2. 공제, 보증, 출자금 증대 3. 자금운용의 효율화 4. 신상품 개발 5. 업무영역 확대	1. 전산시스템 리뉴얼 2. 연금화제도 도입 3. 마일리지 제도 도입

건축사공제조합(이사장 신우식)이 손해배상공제업무, 보증업무 등 각종 사업의 성공적 수행, 조합원 이익을 위한 각 위원회 활동을 강화하고 나섰다.

이를 위해 조합은 지난 8월 18일 건축사회관 3층 국제회의실에서 위원회 합동 워크숍을 개최하여 주요 업무 추진실적과 정책 현안을 공유하고 소관 위원회의 역할과 기능 강화 방안을 모색했다.

대외협력위원회는 '대형건축사사무소 영입방안'을 주제로, 법제위원회 및 정관개정 TF는 '정관' 개정사항 검토를 주제로 이를 위한 세부방안을 논의했다. 자금운용위원회는 '자금관리규정' 개정안 검토 및 자금 운용방안에 대해서, 전산개발위원회는 'AI 대비를 위한 전산시스템 운용방안'을 토의했다.

정책기획위원회는 '마일리지 제도 도입방안 및 출자증자 제한 해제 방안 검토' 방안을 모색했고, 투자자문위원회는 경제 전망과 향후 투자 방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홍보편찬위원회는 브로슈어, 홍보영상, 조합지, 대한건축사신문을 통한 홍보방안을, 연금 TF는 협회 가입 시 조합원 가입 우선 의무화 등 연금화제도 시행방안에 논의했다.

지난 8월 18일 건축사공제조합 위원회 합동 워크숍이 건축사회관 3층 국제회의실에서 열렸다.

건축사공제조합 신우식 이사장이 조합 중단기 세부 실천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신우식 이사장은 "어려운 경기상황 가운데 조합이 건축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 조합원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혜안을 모아 역량을 발휘해 달라"고 주문했다.

장영호 기자

국회 입법 동향

여당 "설계·시공·감리 전 과정 점검 시스템 강화 특별법 제정 추진"

무량판 아파트 부실공사 진상규명 TF서 점검 시스템 강화하는 특별법 제정 검토

김정재 국민의힘 아파트 무량판 TF 위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아파트 무량판 부실공사 진상규명 및 국민안전 TF 제3차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국민의힘이 최근 불거진 LH 발주 무량판 아파트 부실 시공 사태와 관련해 '설계·시공·감리' 전 과정에 점검 시스템을 강화하는 특별법 제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아파트 무량판 부실공사 진상규명·국민안전 태스크포스(TF)는 8월 22일 국회에서 열린 3차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익명을 요구한 복수의 정치권 관계자는 TF 위원장인 김정재 국회의원(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은 이날 회의를 마친 뒤 "사고 조사에 대한 종합 발표는 8월 말에 하기로 되어 있다"고 전하며 "중요한 것은 설계와 시공, 감리가 모두 따로 돌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전체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하고, 그렇게 따로 노는 것을 하나로 엮어주는 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정재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법안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한 기간은 한 달 정도라고 언급했으며, 관련 법 개정을 위해서 20여 개의 법을 개정해야 함에 따라 특별법을 만들자는 의견이 나왔다고 소개했다.

김정재 위원장은 이날 TF 모두발언에서 "2017년 이후 LH가 발주한 공공주택에서 지하주차장이 무량판으로 시공된 단지를 전수조사한 결과, 91개 단지 중 15개 단지에서 기둥 주변 전단보강근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주거 안전에 대해 심각한 국민 불안을 초래했다"며 "부실공사에 이어 조사누락, 축소발표, 부실조사 의혹까지 더해져 LH에 대한 국민 신뢰는 바닥인 상황인 만큼 LH의 문제점을 철저히 분석하고 따져 국민 눈높이에 맞는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LH 혁신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기도 했다.

김정재 위원장의 모두발언 이후 이한준 LH사장의 관련 보고도 있었다. 이한준 사장은 이 자리에서 LH 전관업체와 계약 시 가·감점 제도 마련, 퇴직자 명단 제출 의무화 등 내부 규정 신설 방안에 대한 보고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관련 보도를 종합하면 TF에 참여한 서범수 위원 역시 구조와 설계, 시공과 감리의 소통부재의 문제성을 지적하기도 했다. 서범수 의원은 건축사와 구조기술사, 시공 및 감리 등 건축 주요 관계들의 함께 의논을 해가면서 일을 진행해야 하는데 현재는 단절돼 있는 상태라고 진단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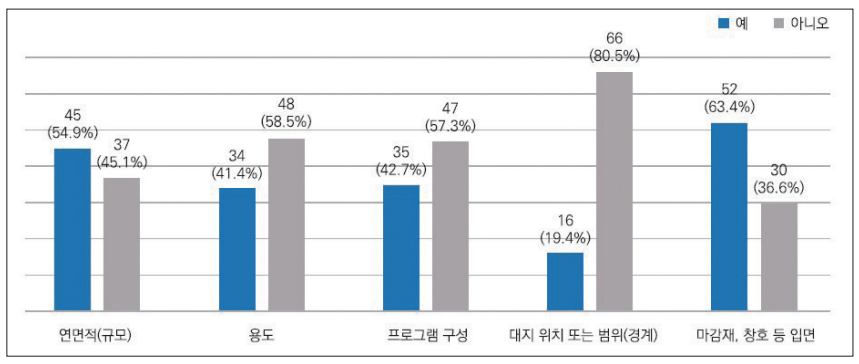
한편, LH는 지난 16일 경영심의회를 열고 철근이 누락된 무량판 구조 임대주택 단지 입주민 보상 방안을 의결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홍기원 의원이 LH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상 방안은 크게 위약금 면제, 이사비 지원, 국민임대 계약자 감점 면제, 대체 임대주택 지원 등 4가지다.

또 LH는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국민임대주택 계약자가 중도해지에 따른 감점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시행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박관희 기자

연구리포트 – 건축공간연구원 '공공건축 설계공모 당선안 변경에 대한 발주자와 설계자의 인식'

공공건축 설계공모 당선작 설계변경 잦아 73.9% 달해…예산·기간 변경 최소화 위해선 사업 초기 '기획 내실화' 필요



설계단계 세부 계획 항목별 변경 발생 비율

건축 설계공모 이후 생산과정을 모니터링하고 그 특성을 파악한 연구보고서가 나와 관심을 끈다. 2019년부터 설계공모 의무적용 대상이 설계비 1억 원 이상 건축물로 확대되어 연간 1,000건 이상의 공공건축 설계공모가 시행되는 가운데, 당선안 변경에 대한 발주자와 설계자 인식을 조사한 결과, 두 주체 모두 설계변경 방지책으로 사업 초기 기획 내실화가 필요하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하면서도 당선 원안 구현이라는 제도의 기본 원칙에 대해선 입장 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축공간연구원은 8월 17일 '공공건축 설계공모 당선안 변경에 대한 발주자와 설계자의 인식' 연구 보고서를 내놓았다. 설계공모 제도가 도입된 이후 그 기본 원칙에 부합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공공건축 사업에 참여 경험이 있는 발주자와 설계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한 결과다.

보고서상 설계공모 이후 당선안 변경 실태에 따르면, 설계 단계에서 계획(설계안) 변경이 있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과반이 넘는 73.9%로 나타났다. 변경내용은 마감재, 창호 등 입면(63.4%), 연면적(규모)(54.9%), 프로그램 구성(42.7%), 용도(41.7%), 대지 위치 또는 범위(19.4%) 순이었다.

공사단계에서 계획(설계안) 변경이 있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44.1%였다. 마감재·창호 등 입면이 변경된 비율이 63.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프로그램 구성(24.5%), 연면적(23.4%) 등의 변경이 뒤를 이었다.

설계단계에서 당선안 계획(설계안) 변경이 발생되는 주요 요인은 예산 문제다. 발주자와 설계자 모두 공사비 고려와 같은 예산 관련 사항을 설계변경 주요 요인으로 꼽았다. 당선안 변경 최소화를 위해선 설계자는 설계공모 이후 설계안 지위 확보를 위한 제도적 방안 마련과 더불어 사업 의도를 반영한 설계공모 지침서와 과업지시서 마련을 중요하게 인식했다.

설계공모 취지 달성을 위한 중요 사항에는 발주자·설계자의 역량 및 전문성이 꼽혔다. 설계자는 특히 사업의 일관성, 관리자의 전문성을 중요하게 인식했다. 발주기관의 의사결정이 과업 범위와 방향, 계획 변경의 필요 또는 추가 과업의 발생 여부 등 예산·인력의 투입과 관련된 중요사항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그 밖에 효율적인 공공건축 사업 관리를 위한 절차 간소화·일원화, 공무원 순환보직제의 한계, 최저가 공사 낙찰 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설계공모 이후 공공건축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변경에 대한 발주자와 설계자의 인식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당선안의 불합리한 변경 경험에 대한 체감도 측면에선 발주자는 계획변경을 당선 원안을 최적의 안으로 보완해 나가는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이해한 반면, 당선안 지위 확보 방안 마련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설계자는 원안 변경 자체를 불합리하다고 인식했다. 다만, 설계, 공사 단계의 예산·기간 변경 최소화를 위해 발주자와 설계자 모두 사업 초기 기획의 내실화 필요성을 중요하게 인식했다.

장영호 기자

2023 대한민국 신진건축사 워크숍

‘함께하는 미래’ 주제로 신진 건축사가 당면한 문제 토론

분임토론에 앞서 신진건축사위원회 발표 및 질의응답 진행,
설계공모 심사 공정성 의문 다수 제기
신진 건축사 성장 위한 협회 역할·신진 건축 세계화 등 논의

‘함께하는 미래’를 주제로 2023 대한민국신진건축사 워크숍이 공주한옥마을에서 8월 18·19일 양일간 열렸다.

2023 대한민국 신진건축사 워크숍이 지난 8월 18일부터 19일 양일간 공주한옥마을에서 진행됐다. 이번 워크숍에는 전국 17개 시도건축사회 소속 신진 건축사 40여 명이 참여했다.

‘함께하는 미래’를 주제로 진행된 워크숍은 ▲신진건축의 세계화 ▲신진을 위한 민간대가기준 정립 ▲신진건축사의 업무영역 확대 방안 등이 토론 주제로 다뤄졌다.

대한건축사협회 석정훈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신진건축사들의 발전과 기울어진 건축계의 기반을 다시 세우는 게 중요하다”며 “작금에 대두되는 건축계 문제는 위기가 아니라 새로운 시대를 위한 기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건축의 미래와 건축사의 위상을 올리기 위해 협회가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한건축사협회 신진건축사위원회 윤규섭 위원장

신진건축사위원회 윤규섭 위원장도 “이번 워크숍은 신진 건축사가 당면한 문제를 다각도로 토론하고 소통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함”이라며 “불확실성이 커진 무성장의 시대에 ‘함께하는 미래’라는 주제 아래 신진과 중진 건축사가 함께 공감대를 형성하고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이전과 다르게 분임토론에 앞서 신진건축사 토론이 먼저 진행됐다. 신진 건축사가 협회에 바라거나 개선 사항을 질문하면 이를 토대로 토론과 논의가 이뤄지는 방식이다. 참여한 건축사들은 대부분 현재의 설계공모 심사 공정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더불어 신진건축사에게 상대적으로 높은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는 적격심사의 적정성 여부, 신진 건축사 성장을 위한 협회 차원의 보호 방안, 신진 건축의 세계화를 위한 방안 등이 함께 토론 주제로 거론됐다.

이후 진행된 소주제별 분임토론에서는 3개 조가 각각의 주제를 갖고 토의가 진행됐다. 1조는 ‘신진 건축의 세계화’, 2조는 ‘신진을 위한 민간대가 기준 정립’, 3조는 ‘신진건축사의 업무영역 확대 방안’이다. 주제별 분임토론의 결과는 19일 오전 발표시간을 통해 공유됐다.

‘신진 건축의 세계화’를 주제로 한 1조는 신진 건축의 미래를 위한 준비를 소주제로 삼아 네 가지 카테고리로 세분화했다. ▲세계화를 위한 협업네트워크 및 플랫폼 구축 ▲지속가능한 미래지향적 사고 및 정책 ▲신진건축사들의 정책참여 기반 마련 ▲공정한 경쟁을 위한 환경조성 등이다. 발표를 맡은 성창욱 건축사(대한건축사협회 신진건축사위원회 위원)는 “세계화라는 주제는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바 사이의 간극이 컸던 만큼 협회를 통해 구체화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논의했다”고 운을 떼었다. 이어 “미래지향적인 디자인을 위해서는 법규의 패러다임이 변경될 필요가 있다”며 “신진 건축사들의 의견이 협회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대의원 구성 시 일정 비율이상 신진 건축사가 참여하는 방안을 모색하면 좋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신진을 위한 민간대가 기준 정립’을 주제로 토론한 2조는 민간대가 기준 정립에 있어 중진과 신진의 공감대 형성에 대한 중요성을 언급했다. 설계비의 정상화 없이는 건축계 발전과 미래를 담보할 수 없는 만큼 업무대가를 산정하는 방식의 구체화 방안에 대해서도 말했다. 발표를 진행한 이재현 건축사(모루 건축사사무소)는 “프로젝트별로 대가를 산정하는 기준뿐 아니라 규모와 관계없이 건축사의 필수 업무에 대한 대가 산정도 중요하다”며 “상담부터 기획 등 업무 프로세스별 대가가 세분화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설계비 기준과 비교 대상의 부족으로 설계비를 산정하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며 “건축사의 단계별 업무를 건축주가 이해할 수 있도록 각 업무별 홍보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3조는 ‘신진건축사의 업무영역 확대 방안’을 주제로 토론을 진행하며 어떻게 하면 설계공모와 입찰 등에서 공정한 기회를 얻을 수 있을지를 고민했다. 발표자인 김예은 건축사(로그 건축사사무소)는 “3조원의 과반은 설계공모가 잘못되었다기보다 현재의 심사위원 시스템이 문제라고 인식한다”며 “설계공모뿐 아니라 입찰, 제안, 수의계약 등의 영역에서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건축사 자격을 취득하기 이전에 건축사사무소에서 일한 경력을 인정받게 된다면 신진 건축사가 자리를 잡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조아라 기자

2023 대한민국 신진건축사 워크숍 참가자들이 기념사진을 하고 있다. 전국 17개 시·도 건축사회 소속 신진 건축사 40여 명이 참여했다.

FOCUS 불안감 커지는 부동산PF…부실 여파 건축사사무소에도 직격탄

PF 막히며 건축사사무소 ‘돈맥경화’…PF 부실 책임 건축사사무소가 떠안지 않도록 위기관리 만전 기해야

“PF 부실 심화에 소규모 건축사사무소 신중한 접근 필요”
SPC법인(특수목적법인)에 대한 제도적 보완 요구도 잇따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현재 비은행권의 부동산 PF 위험 노출액은 115조 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민간프로젝트 PF 위험성에 소규모 건축사사무소들도 고스란히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시장에서 한동안 금융권에 막대한 수익을 안겨준 부동산 PF가 금리 상승 국면이 되자 부실의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다. 관련 프로젝트에 뛰어든 건축사사무소의 입장도 난처하긴 마찬가지이다.

경기침체에 따른 분양시장의 동반 침체로 디벨로퍼(시행사) 수익의 불확실성이 커져 사업 초기 단계에 있는 개발도 좌초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서다. 부동산 PF에 대출을 주선한 금융권들의 연체율이 치솟으면서 비상이 걸렸다.

수도권 A 건축사는 “공급을 확대해 안정을 찾는 기조가 정부 방침인데, 사업 추진에 핵심이 되는 PF 대출이 막히면서, 일을 먼저 진행한 상태에서 설계비 지급이 이뤄지지 않아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며 “더군다나 중소규모 건축사사무소가 추진하는 대부분의 PF 대출·보증이 개발 단계 중 위험도가 가장 높은 ‘브리지론’에 집중되면서 피해는 더욱 확대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브리지론은 본PF로 넘어가기 위한 중간 다리 역할로 사업 초기에 디벨로퍼가 일으키는 고금리 단기 대출인데, 일반적으로 디벨로퍼가 본PF로 넘어가면서 브리지론을 상환하게 된다. 하지만 금리가 오르면서 PF의 수익성은 하락하게 돼 결과적으로 브리지론에서 본PF로의 전환이 어려워지게 되고, 디벨로퍼 입장에서 비용부담이 확대되면서까지 개발 사업을 강행할 필요성이 떨어지게 되는 상황이 된 것이다.

특히 건축사사무소의 경우 용역을 수주하면서 받은 설계비의 일부를 곧바로 협력업체에게 지급하기 때문에 미수금이 쌓이면 경영난을 피할 수 없다. 용역을 수주한 건축사사무소는 일을 진행해야만 약속된 용역비를 받을 수 있어 악재가 겹치면 긴장감도 커질 수밖에 없게 된다. 중소건축사사무소 대부분은 사업을 주도하는 디벨로퍼 등과 용역비를 단계별로 받는 방식이 아닌 PF이후에 받는 방식으로 계약하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일례로 디벨로퍼나 시행주체들은 보통 자기자본으로 하지 않고 PF를 통해 대금을 마련하게 된다. 최근 10% 수준에 그치는 PF성공률에서 알 수 있듯이 PF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모든 리스크를 건축사사무소가 안고 가게 되고, 자금공급이 막힌다면 설계비는 가장 후순위로 밀려나 건축사사사무소는 직격탄을 맞게 된다.

관련해 B 건축사는 “협력사도 현실이 어려운 건 마찬가지지만 협력사는 문제가 발생할 경우 설계를 담당하는 건축사사무소에 청구하는 현실이다”며 “때문에 시행사로부터 사업 초기 설계비의 10% 수준인 2억 원을 받고 진행했는데, 2억 원 중 1억 원을 협력사에 보냈다”며 “3년이 지난 지금 그동안 일한 비용 미수금 규모는 10억 원이 넘지만, 사업이 이대로 무산될 경우 오히려 협력사에서 청구하는 5억 원을 만들어 줘야 할 판이다. 수주가 급한 소규모 건축사사무소에서 5~6억 원대의 민간사업에 많이 뛰어드는데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조언해 주고 싶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디벨로퍼나 자산운영사들이 SPC법인(특수목적법인)을 설립·운영하고 사업이 잘못될 경우 모든 책임과 채무를 SPC법인에게만 지우는 현 제도의 보완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관희 기자

REPORT 경기연구원

3기 신도시 개발에 따른 경기도 내 자족기능 강화 방안은?

3기 신도시 자족기능용지 면적 평균 11.2%, 2기 신도시보다 높아

경기도 내 조성 개발 지구 204개 중 자족기능용지는 123개 지구

도내 지역별 산업입지 여건 차이 고려해야

건축과 도시설계(Urban Design)는 불가분의 관계다. 도시라는 지역 사회 안에서 건축물은 구성원과 영향을 주고받으며 도시의 일부로 자리매김 한다. 아쉽게도 산업화를 겪으면서 건축과 도시설계가 기능적으로 분화됐고 점차 그 간극이 벌어졌다. 하지만 도시계획은 여전히 건축적 섬세함을 필요로 한다. 도시만이 가진 독특한 분위기는 기능적 구획이 아닌 디테일에서 생겨나기 때문이다. 한 건축사는 "지금 우리를 둘러싼 도시 풍경은 우리가 합의하고 만들어 낸 약속의 결과물이다. 그 풍경이 만족스럽지 못하다면 좀 더 나은 방법을 찾아서 규칙을 만들고 실천하고 호오를 말해야 한다"고 말한다. 대한건축사협회는 우리를 둘러싼 도시 환경의 변화 추이를 따라가며 현 시점에서 필요한 건축적 섬세함을 고민하려 한다.

사업종류	개발사업		자족기능용지 有 개발사업				자족기능용지	
	지구수	총면적	지구수	비율	총면적	비율	면적	비율
택지개발	4	578	2	50.0	398	68.8	8	2.0
공공주택	48	7,289	35	72.9	6,833	93.7	460	6.7
민간임대주택	11	379	3	27.3	146	38.5	11	7.7
도시개발	73	2,806	15	20.5	1,816	64.7	174	9.6
산업단지	68	2,812	68	100.0	2,812	100.0	2,812	100.0
합계	204	13,863	123	60.3	12,004	86.6	3,465	28.9

경기도 개발사업 내 자족기능용지 계획(단위:만㎡, 개) 자료=경기연구원

정부가 2018년 3기 신도시 계획을 발표했다. 서울과 서울 일부 근교의 부동산 폭등에 따른 주택 공급 물량 확보를 위해서다. 일각에서는 3기 신도시의 우선 과제로 서울과의 접근성을 위한 교통망 개선 확보를 꼽는다. 그에 반해 경기도 차원의 자족기능용지의 수급과 도입 기능 관리를 위한 정책 방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1·2기 신도시의 문제점으로 지적돼 온 침상도시화를 방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3기 신도시 조성 정책이 도시의 자족기능 확대, 교통대책 선 수립 등을 목표하고 있지만 지구별 자족기능 특화 방안, 기업유치 전략 등 구체적인 계획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경기연구원은 '경기도 대규모 개발사업지구 자족기능용지 관리방안' 보고서(이하 보고서)를 통해 3기 신도시의 자족기능용지 관리를 위한 경기도 차원의 고려 사항과 차별화 방안 등을 제시한다.

3기 신도시는 남양주 왕숙, 인천 계양, 하남 교산, 부천 대장, 고양 창릉, 광명 시흥, 의왕 군포, 화성 진안, 김포 한강2가 후보지로 선정돼 본격적으로 추진이 시작됐다. 보고서는 3기 신도시는 앞선 1·2기 신도시와는 다른 자족기능용지를 적용해 나갈 것을 제안한다. 1기 신도시의 경우 주택 위주로 정주환경이 조성되고, 업무·상업 중심의 생활적 자족기능의 성격이 강했다. 2기 신도시는 산업시설용지를 확보했으나 자족기능용지 활성화 측면에서는 입지 특성에 따라 지구별 차이를 보인다.

3기 신도시의 자족기능용지 면적은 전체 평균 11.2%로, 그 중 실질적 산업용지 면적은 9.5%로 집계돼 2기 신도시보다 비중이 높다. 다만 2기 신도시 자족기능용지의 산업기능 입지가 미진한 시점에서 3기 신도시 자족기능용지의 대규모 공급은 수급 불균형에 따른 지역 침체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보고서는 우려했다.

또한 3기 신도시 자족기능용지는 첨단산업 유치와 기업·창업을 지원하는 형태다. 이는 2기 신도시의 입지 특성과 도입기능이 중복될 우려가 있다. 지구별로 세부 유치업종에는 차이가 있지만 판교, 광교신도시와 같이 지식기반서비스업과 첨단산업 중심의 기업·연구기관을 유치하기 위해 전반적으로 2기 신도시와 유사한 도입 기능을 제시하고 있다. 하남 교산, 과천지구는 인공지능, 바이오산업 유치로 2기 신도시와 도입 기능이 유사하다. 남양주 왕숙, 고양 창릉, 부천 대장지구도 첨단·신산업 유치와 스타트업 육성 형태의 2기 신도시와 유사한 계획을 제시했다. 3기 신도시 입지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개발사업의 특성을 분석한 뒤, 입지 특성에 따른 도입기능의 제시가 필요한 이유로 꼽힌다.

경기도 자족기능 관련 용지 살펴보니

2022년 기준으로 경기도에서 개발 사업이 진행 중인 곳은 총 204개 지구다. 그중 자족기능용지 물량이 있는 곳은 123개 지구로 비율은 전체 약 28.9%다. 전체 자족기능용지의 81.25%는 산업단지, 13.3% 공공주택, 5%가 도시개발사업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 택지 및 공공주택사업

구분	여건 및 특성	관리방향
수원권	• 제조업(주력기간+지식기반) 종사자수가 약 23만명으로 경기도 권역 중 가장 많은 종사자 분포 • 지식기반서비스업의 종사자도 10만명 이상이며, 연구개발 및 엔지니어링업이 가장 특화된 권역	• 기 형성된 집적·특화산업 중심의 관리
고양권	• 제조업 종사자수 약 10만명, 지식기반서비스업 약 5만명으로 경기북부에서 종사자수가 가장 많음 • 지식기반제조업의 성장이 나타나며, 전자상거래업이 경기도에서 가장 특화	• 기 형성된 집적·특화산업 중심의 관리
성남권	• 제조업 종사자수는 약 7만명 정도이나 지식기반서비스업 종사자 14만명으로 경기도에서 가장 많음 • 지식기반서비스업이 집적·특화되어 있으며, 여러 업종에서 종사자수 증가도 나타남	• 지식기반서비스업 중심의 관리
안산권	• 제조업 종사자수 약 12만명으로 수원권 다음으로 많으며, 제조업 18개 업종 중 14개 업종에서 특화 • 경기도 내에서 제조업이 가장 특화된 권역	• 제조업 중심의 관리
안양권	• 제조업의 비중은 미미하며, 지식기반서비스업 중심으로 성장 • 수원권, 성남권과 함께 연구개발 및 엔지니어링 업종이 성장	• 지식기반서비스업 중심의 관리
의정부권	• 경기도에서 주력기간산업 중 섬유산업이 가장 집적된 권역 • 섬유산업 외 제조업이나 지식기반서비스업의 다른 업종의 규모는 매우 취약	• 특화산업의 육성 관리 • 성장산업 도입
남양주권	• 경기도 권역 중 산업기반이 가장 취약 • 주력기간산업과 지식기반서비스업의 종사자수가 증가하고 있으나 기존 종사자수가 적어 성장효과 미미	• 성장산업 도입
이천권	• 경기도 권역 중 산업기반이 가장 취약하나, 반도체 관련기업의 입지로 업종의 특화도가 가장 높음 • 특화된 반도체업종의 성장 관리, 지역경제를 위한 타 업종의 성장 촉진 필요	• 특화산업의 육성 관리 • 성장산업 도입

경기도 권역별 산업 특성 및 관리 방향 자료=경기연구원)

내 자족기능용지는 3기 신도시와 같은 대규모 공공주택개발사업에 공급물량이 높다. 또 특정 산업을 전략적으로 유치하는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에서 자족기능용지가 집중됐다. 대표적인 것이 고양방송영상밸리, 일산테크노밸리, 용인플랫폼시티, 광명유통단지, 남양주양정역세권복합단지 등이다. 이러한 특정 도시개발사업지구는 3기 신도시와 인접해 있어 준공 시기에 따른 공급물량과 유치 업종의 고민이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말한다.

더불어 보고서는 자족기능용지 관리를 위한 선결과제를 제안한다. 우선 경기도 내 지역별 산업입지 여건의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다. 3기 신도시와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는 경기도 및 인천시 지역에 13개 지구가 조성됐다. 대부분의 사업지구에서 도시 자족성 확보를 목표로 추진됐다. 다만 경기도는 지역별 위치에 따라 각종 규제로 인한 기업 입지에 제한이 있다. 규제가 적용되는 동부·북부지역에는 이미 입지한 산업체 등으로 인해 사업기반이 약하고 기업입지의 선호도가 적다. 과밀억제권역 역시 기업 입지 제한으로 작용한다. 때문에 산업기반이 약한 지역에서 신도시와 자족기능용지를 공급하는 것은 수요 부족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해당 지역의 기업입지 여건과 특성을 파악해야 한다.

경기도 차원에서 권역별 산업용지 공급량과 산업입지 수요에 차이가 큰 만큼 조정이 필요하다. 특히 서울에 집중된 지식기반서비스 기능을 분산시킬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덧붙이고 있다. 아울러 보고서는 경기도 권역별 관리 방향의 수립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산업기반이 다른 각 권역별 여건을 고려해 특화산업의 강화, 성장산업의 보강, 취약산업의 보완 및 육성 등 도입기능과 유치 업종의 전략적인 검토를 당부했다.

조아라 기자

건설기술인 경력관리비 납부안내

2023년도 현재 관리받고 있는 건설기술인 경력관리비 납부방법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경력관리비를 납부하시고 효과적인 경력관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 **경력관리 납부방법**

- 온라인 : 건설기술인 인터넷경력신고 홈페이지(work.kira.or.kr)
  건설기술인 인터넷증명발급 홈페이지(cert.kira.or.kr)
- 오프라인 : 본 협회 및 시·도 건축사회 통한 납부

□ **미납자에 대한 제재**

2012년도 이전의 연회비를 미납하였거나, 정기관리자 관리비를 미납하는 경우

- 건설기술인 경력신고 및 경력증명서 발급 불가
- 타 수탁기관 이관 및 경력수정, 경정 불가

□ **담당자 및 문의처**

- 대한건축사협회 경력관리팀 02-3415-6842~8

대한건축사협회 회장

건축 질의회신 Talk

세대수를 증가하지 않는 수직증축 리모델링 해당 여부 – 2

법 조항	하위 조항	회신일
주택법 제2조	주택법 시행령 제13조	23.7.10

질의요지

「주택법」 제68조 제4항(구조안전진단) 및 제69조 제2항(구조단전성 확인)에 규정된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에 각각 세대수를 증가하지 않는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포함되는지?

회신

「주택법」에 규정된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이라는 용어는 같은 법 제2조 제25호 다목 단서 이하부터 같은 법 제45조까지에서는 세대수 증가형 수직증축 리모델링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된 반면, 같은 법 제46조 제1항 이하에서는 세대수 증가형 수직증축 리모델링과 세대수를 증가하지 않는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모두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된 것이라 할 것인바, 같은 법 제68조 제4항 전단 및 제69조 제2항에 규정된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역시 세대수를 증가하지 않는 수직증축 리모델링도 포함하는 의미의 용어라고 할 것임.

법 규정상 세대수가 증가하지 않는 수직증축 리모델링은 허용되지 않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직증축이 허용되는 경우에는 구조의 안전성검토를 수반하여야 함.

해외건축 NOW - AIA·RIBA 지역사회 위한 '공공공간 필요성' 충족시킨 설계사례

지역 사회 위한 '공공 공간 필요성' 충족시킨 설계 주목 받아

건축은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다. 한 번 건축되면 되돌리기 어렵고 오랜 시간 동안 상시 사람들이 이용한다. 때문에 건축사는 설계에 앞서 건축물이 미칠 사회적 영향까지 고려해야 한다. 지역마다의 특색과 환경이 다른 만큼 사회 전체를 조망해 보는 거시적 안목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대한건축사신문은 매년 발표되는 주요 해외 건축상을 톺아보려고 한다. 대체로 건축상은 시대적, 사회적 경향성을 담은 작품을 선정한다. 건축상을 살펴봄으로써 현재 건축계가 지향하는 일종의 시대정신을 들여다보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건축적 우수성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영국왕립건축사협회의 스털링상(The RIBA Stirling Prize)과 소규모 프로젝트의 설계 우수성을 평가하는 미국건축사협회의 스몰 프로젝트 어워드(AIA Small Project Awards)를 중심으로 살펴보려 한다.

The RIBA Stirling Prize

혁신, 독창성, 접근성, 지속가능성 등 다양한 건축적 요소를 평가하는 RIBA 스털링상. 2021년도에는 Grafton Architects의 Kingston University 'Town House'가 수상했다. 타운 하우스라는 이름처럼 이 건물은 의도적으로 민주적이고 열린 공간으로 설계됐다.

이 건축물은 Kingston University 부지를 재활성화 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대학의 핵심 원칙인 지속가능성 및 커뮤니티 액세스를 반영한 설계 디자인이 학생들의 학습 경험을 근본적으로 재구성했기 때문이다. 자유롭고 개방적인 공간을 만들어 비공식 학습, 연구 및 성능이 한 지붕 아래에서 유기적으로 발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직원, 학생 및 졸업생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를 염두에 두고 설계된 Town House는 지역 사회에 필요한 공간을 제공한다.

2021년도 RIBA 스털링상은 Grafton Architects의 Kingston University 'Town House'가 수상했다. Kingston University 부지를 재활성화 한 Town House는 직원, 학생 및 졸업생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를 염두에 두고 설계됐다. 지역 사회에 필요한 시민을 위한 공간을 제공한다. 사진=RIBA

대학의 혁신적인 학습 센터로 설계된 이 건물의 개방 정신은 내부에 반영됐다. 건축물 내 숙박 시설의 50% 이상이 개방형으로 설계됐다. 서로 맞물리는 공간의 매트릭스와 물리적·시각적으로 중첩되도록 직조해 학생, 방문자, 그리고 교직원이 상호 연결된 공간을 이용할 수 있다. 동시에 독창적인 학습과 협업이 가능하도록 그룹 작업을 위한 코너를 제공한다. Town House의 거주자는 건물 전체에서 일어나는 일을 항상 볼 수 있으므로 협업이 장려되고 학습을 사회적 과정으로 촉진시킨다.

북유럽 건축에서 볼 수 있는 외부 회랑을 반영하는 콜로네이드는 학생, 직원, 방문자, 지역 사회 구성원에게 장벽 없는 편의 공간을 제공하는 계획의 핵심 부분이다. 위층에는 3개의 계단식 조경 테라스가 있고, 건물 전체에 걸쳐 외부 이동을 할 수 있다. 지면에서 지붕까지 계획을 쉽게 연결한다. 재구성된 석재로 건축된 콜로네이드의 바깥 면은 맞은편에 있는 서리 카운티 의회 건물의 포틀랜드 석재 외관을 반영했다. 활성화 콘크리트 프레임을 사용해 건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였다.

RIBA 스털링상 심사위원단은 "학생과 지역 사회를 매끄럽게 연결해 고등 교육을 위한 진보적인 새로운 모델을 만들고 국제적인 찬사와 관심을 받을 만하다"라고 평가했다.

AIA Small Project Awards

AIA의 스몰 프로젝트 어워드는 소규모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설계 우수성을 평가하는 상이다. ▲최대 건축비 25만 달러의 건축물, 환경 예술 작품, 건축 디자인 요소 ▲건설 비용이 최대 250만 달러 내외의 소규모 프로젝트 건설 ▲16,529.00㎡ 미만의 소규모 프로젝트 건축물, 환경 예술 작품, 건축 디자인 등을 대상으로 한다.

금년도 수상작 중 하나인 Jade Alley는 Daniel Toole Architecture, SB Architects가 공동으로 설계를 진행했다.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즐길 수 있도록 설계된 Jade Alley는 공간을 즐기기 위해 구매가 필요하지 않은 유일한 장소 중 하나다. 또한 자동차에 의존하는 도시에서 보기 드문 보행자 중심의 공공 공간을 제공한다. 사진=AIA

금년도 수상작 중 하나인 Jade Alley는 Daniel Toole Architecture, SB Architects가 공동으로 설계를 진행했다.

Jade Alley는 포물선 콘크리트 벽과 정면은 크기, 그림자, 빛의 변화로 새로운 건물과 기존 건물을 함께 통합해 특징 없던 마이애미 골목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었다. 쓰레기통, 변압기, 무단 주차가 가득했던 도시의 유휴공간을 지역사회를 위한 흥미로운 공간으로 재탄생 시켰다.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즐길 수 있도록 설계된 Jade Alley는 공간을 즐기기 위해 비용이 필요하지 않은 유일한 장소 중 하나다. 모두가 접근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 포장도로, 진입로 및 인도 전환을 현재 접근성 표준을 충족하도록 완전히 재건했다. 소매점, 식당 종사자, 고등학생, 관광객들이 아치와 골목의 울창한 식재가 만든 그늘에서 휴식을 취하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다.

또한 자동차에 의존하는 도시에서 보기 드문 보행자 중심의 공공 공간을 제공한다. 아치는 원래 골목길의 비공식적인 분위기를 유지하기 위해 거친 판자 형태로 주조됐다. 판자가 남긴 흔적은 아치에 목재와 유사한 질감을 부여하는데, 이는 마이애미의 극한 기후에서 흔히 볼 수 없는 것이다.

아치와 유사한 기하학이 골목의 새로운 상점 전면을 따라 적용됐다. 기존 쓰레기, 기계실은 지역 기업이 운영하는 작은 소매 및 식당 공간으로 달라졌다. 또한 마이애미와 전 세계 예술가들의 벽화와 예술 설치 작품을 선보인다. 이 작품들은 무료 예술 산책, 공연, 기타 활동과 결합해 도시의 문화 현장에서 존재감을 드러낸다. 조아라 기자

소방관진입창 삼중 유리 허용, 건축물 화재안전 위해 방화구획 기준 강화 추진

국토부, 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건축물의 화재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건축법 시행령'과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 40일간(8월 22일~10월 1일) 입법 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다중이용건축물의 방화구획 시공현황을 사진·동영상으로 기록하도록 하는 한편, 방화구획의 벽과 벽 사이 모든 틈새를 내화채움구조로 메우도록 명확히 했다. 재연·배연 풍도(덕트)에도 방화댐퍼를 설치하도록 해 방화구획의 화재 확산방지 성능을 더욱 강화했다.

또 층고가 높은 시설에 자동방화셔터를 설치하는 경우 자주 발생하는 열감지기의 화재감지 지연 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열감지기 대신 소방법령에 따른 특수감지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의원·산후조리원 등 피난 약자가 이용하는 시설에는 내부 마감재료를 난연 이상 자재로 하도록 했다. 기존 거실의 바닥면적 200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건축물의 경우와 거실의 바닥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은 동 규제에서 제외된다. 또 소방관 진입창을 단열에 유리한 삼중 유리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일부 기준을 합리화했다. 현행은 이중 유리(유리+공기층+유리) 두께 24밀리미터 이내, 삼중 유리 사용은 불가능하다. 제도 개선으로 가스층을 제외한 유리의 두께를 기준으로 제한하고, 일부 삼중 유리는 허용된다.

노대 등에 소방관진입창 설치하는 경우 바닥에서 80~120센티미터에도 가능하도록 단서규정 신설

또 노대 등에 소방관 진입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방관 진입창 설치 위치가 80센티미터에서 120센티미터에도 가능하도록 단서규정이 신설됐다.

방화구획 구성 자재 자료=국토교통부

이정희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은 "건축물의 방화구획은 화재 발생 시 화염과 연기의 확산을 늦추고 이용자의 대피 시간을 확보하는 안전의 필수 요소"라며 "인명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어 건축물의 화재 안전성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팩스·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박관희 기자

제15회 서울국제건축영화제 '스케일(SCALE)' 주제로 9월 6일부터 12일간 개최, 18개국 34편 상영작 소개

오는 9월 6일, 제15회 서울국제건축영화제(SIAFF, 이하 건축영화제)의 막이 오른다.

이번 건축영화제는 15년간 아시아 유일의 건축영화제로 자리매김해온 영화제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아시아를 넘어 글로벌 영화제로 성장하겠다는 포부를 담아 '스케일(SCALE)'을 주제로 개최된다. 이에 건축의 전통과 기술의 균형을 고민할 수 있는 알찬 프로그램 구성으로 건축과 문화예술을 바라보는 일반인의 스케일까지 한층 키울 예정이다.

국내 또는 아시아에서 최초 선보이는 14편의 작품을 포함해 총 18개국 34편(장편 15, 중단편 19)의 건축영화를 선보일 예정이며, 9월 6일부터 10일까지는 이화여대 ECC 내 아트하우스 모모에서, 10일부터 17일까지는 네이버TV 서울국제건축영화제 공식 채널에서 다양한 건축 영화를 만나볼 수 있다.

이번 주제를 아우르는 개막작 '드리밍 월스'는 1960년대 반문화의 아이콘이자 한 세기가 넘는 시간동안 예술가들의 안식처였던 첼시 호텔의 리모델링 공사에도 그곳을 떠나지 않았던 51명의 인물을 조명하며 생각의 여지를 던진다. 올해의 '마스터&마스터피스' 섹션은 2009~2023년 프리츠커상 수상자들의 작품과 작품세계를 들여다보며 건축계가 주목해온 가치를 되새긴다. 건축계의 최신 화두를 탐구하는 '어반스케이프' 섹션은 건축이라는 키워드 아래 다양한 국내 영화들을 소개하고, 국내를 넘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와 장소에 대한 기억, 영화와 건축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에 주목한다. '비욘드'는 건축, 영화, 춤이 만나는 댄스 필름들로 구성, 건축의 경계를 확장해 풍부한 해석 시각을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스페셜' 섹션에서는 한옥과 한옥마을을 배경으로 새로운 유행이 된 한옥을 탐구한다.

9월 6~10일

아트하우스 모모,

11~17일 네이버 TV서

온·오프라인 상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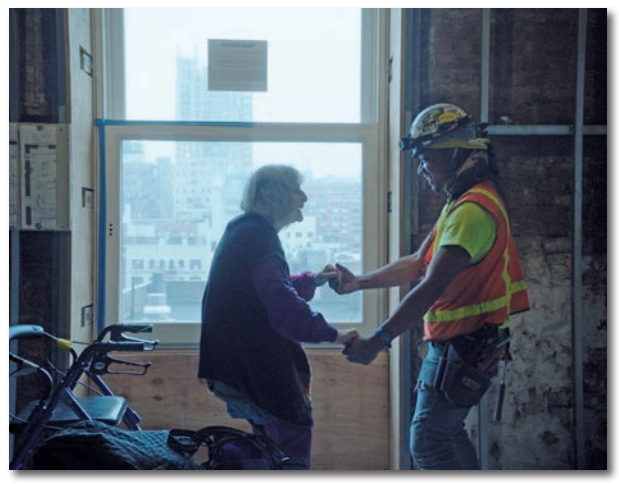
이외 게스트 토크, 호스트 아키텍트 포럼(9/8, 19:30), 한옥투어 및 한옥영화 상영(9/9, 16:00), 주한독일문화원(9/12, 19:30)과 주한스리랑카대사관(9/14, 19:30)에서의 영화 상영과 게스트 토크,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연계 야외상영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마련된다. 상영시간표 및 자세한 사항은 서울국제건축영화제 공식 누리집(siaff.or.kr, QR코드 참고)에서 확인 가능하며, 문의는 서울국제건축영화제 사무국(02-3416-6907)으로 하면 된다.

육혜민 기자

미리보는 상영작

■ 개막작 Opening Film
■ 마스터 & 마스터피스 : 프리츠커 2009-2023
Masters&Masterpieces: Pritzker Architecture Prize 2009-2023
■ 어반스케이프 Urbanscape
■ 비욘드 - 춤추는 건축
Beyond - Dancing Architecture
■ 스페셜 섹션 - 한옥, 새로운 물결
Special Section - Hanok, New Wave

드리밍 월스
Dreaming Walls: Inside the Chelsea Hotel
Dir. 마야 뒤베르디에, 아멜리 반 엠브트
Maya Duverdier, Amélie van Elmbt
2022 | 77' | Belgium, France, Netherlands, Sweden | Color | 15 | Korean Premiere
1960년대 반문화의 아이콘이자 한 세기가 넘는 시간 동안 예술가들의 안식처였던 전설적인 첼시 호텔이 지난 8년간의 보수공사를 거쳐 곧 고급호텔로 다시 태어난다. 지금은 모두 노인이 된 첼시 호텔의 거주자 51명은 여전히 이 공사 현장에서 살고 있다. 두려움과 분노 속에서 어떤 거주자들은 곧 닥칠 커다란 변화의 물결에 대비하고자 하지만, 다른 이들은 호텔에 항의하거나 자신들의 방에 숨는 것을 택했다.



페터 춤토르 방문기
The Practice of Architecture: Visiting Peter Zumthor
Dir. 마이클 블랙우드 Michael Blackwood
2012 | 58' | USA | Color | G | Asian Premie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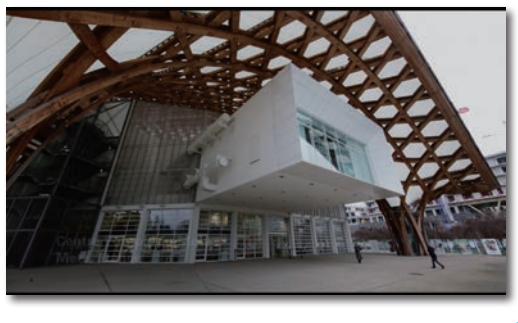
건축, 시간, 그리고 세지마 가즈요
Architecture, Time and Kazuyo Sejima
Dir. 혼마 다카시 Takashi Homma
2020 | 60' | Japan | Color | G | Korean Premiere

리컨버전
Reconversion
Dir. 톰 앤더슨 Thom Andersen
2012 | 65' | Portugal | Color | 12

혁신과 보존 사이 - 왕수 & 아르노 브란틀후버
Wang Shu and Arno Brandlhuber - Innovation and Conservation
Dir. 랄프 브라이어, 클라우디아 쿨란트 Ralf Breier, Claudia Kuhland
2021 | 52' | Germany | Color | G | Korean Premiere

이토 도요오, 멕시코의 도전
No Further Instructions
Dir. 프란시스코 곤잘레스 피냐 Francisco González Piña
2016 | 69' | Mexico | Color | G | Asian Premiere

반 시게루, 독창성의 구성
The Inventive Work of Shigeru Ban
Dir. 막시밀리안 호마에이 Maximilian Homaei
2017 | 13' | Australia | Color | G | Asian Premiere



프로미스. BV 도시
The Promise. Architect BV Dosh
Dir. 얀 슈미트 가레 Jan Schmidt-Garre
2023 | 90' | Germany | Color | G

라카통&바살: 공기와 공간, 빛의 이야기
Constructing Escape
Dir. 카린 다나 Karine Dana
2019 | 38' | France | Color | G | Asian Premiere

프란시스 케레: 사이의 건축
Francis Kéré: An Architect Between
Dir. 다니엘 슈워츠 Daniel Schwartz
2016 | 18' | Germany, Switzerland | Color | G | Korean Premiere

데이비드 치퍼필드: 형태와 물질
David Chipperfeld: Form Matters
Dir. 마이클 블랙우드 Michael Blackwood
2012 | 59' | USA | Color | G | Asian Premiere

죽은 후에도
After Passing Away
Dir. 수유팅 Yu-Ting Su
2022 | 118' | Taiwan | Color | G

건축학 고양이
Architecture & Cats
Dir. 조준형, 이규열
Ricky Junhyung Cho, Lee Kyuyiol
2023 | 70' | Korea | Color | G

제프리 바와의 정원
Bawa's Garden
Dir. 클라라 크라프트 이소노 Clara Kraft Isono
2022 | 89' | UK, Sri Lanka | Color, B&W | 12 | Korean Premiere

드림팰리스
Dream Palace
Dir. 가성문 Ka Sung-moon
2022 | 112' | Korea | Color |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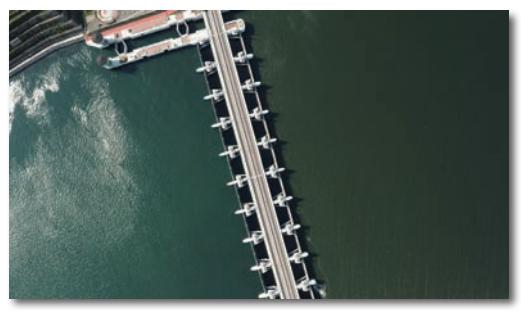
플로리안의 무한한 세계
Infnity According to Florian
Dir. 올렉시 라딘스키 Oleksiy Radynski
2022 | 70' | Ukraine, USA | Color, B&W | 12

학교 가는 길
A Long Way to School
Dir. 김정인 Kim Jeong-in
2020 | 99' | Korea | Color | 12

온산: 오래된 미래II
Onsan: Old Futures II
Dir. 유지수 Jisu Klaire Yoo
2022 | 22' | Korea | Color | G

선 댄스
Sun dance
Dir. 김하연 Kim Hayon
2022 | 35' | Korea | Color, B&W | 12

수라
Sura: A Love Song
Dir. 황윤 Hwang Yun
2022 | 108' | Korea | Color | G



유니버스
Universe Department Store
Dir. 원태웅 Won Taewoong
2022 | 80' | Korea | Color | G

우연히 웨스 앤더슨: 싱가포르 1
A Wes Anderson-ish Singapore Vol.1
Dir. 케빈 시유안 Kevin Siyuan
2021 | 29' | Singapore | Color | G | Korean Premiere

우연히 웨스 앤더슨: 싱가포르 2
A Wes Anderson-ish Singapore Vol.2
Dir. 케빈 시유안 Kevin Siyuan
2023 | 19' | Singapore | Color | G | Korean Premiere

괴인
A Wild Roomer
Dir. 이정홍 Lee Jeonghong
2022 | 135' | Korea | Color | 12

3인 3색: 건축계의 여성들
Women in Architecture
Dir. 보리스 누아르 Boris Noir
2022 | 21' | Switzerland, Germany, Mexico, USA | Color | G

프레임을 넘어서
Beyond the Off-Screen
Dir. 악셀 로빈 Axel Robin
2023 | 10' | Canada | Color | 12 | Asian Premiere

어떤 꿈
A Certain Dream
Dir. 이와 Iwa
2023 | 26' | Korea | Color | G

12월 70일
December 70th
Dir. 송주원 Song Joowon
2022 | 20' | Korea | Color, B&W | 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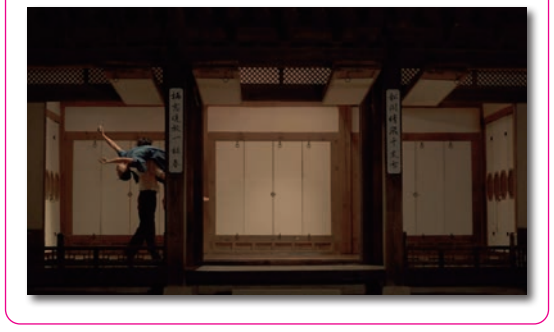
소비에트 건물 사용법
What Shall We Do with These Buildings?
Dir. 조나단 벤 샤울 Jonathan Ben-Shaul
2022 | 28' | Ukraine | Color | 12 | Asian Premiere

경원(敬遠)
Gyeongwon
Dir. 박소영 Bak Soyeong
2019 | 30' | Korea | Color | 12

자유의 언덕
Hill of Freedom
Dir. 홍상수 Hong Sang-soo
2014 | 67' | Korea | Color | 18

어쩌면 더 아름다웠을
Ikseondong 166
Dir. 정현정 Jeong Hyeonjeong
2016 | 28' | Korea | Color | G

풍정.각(風情.刻) 윤씨고택
Pung Jeong. Gak – Yoon's Old House
Dir. 송주원 Song Joowon
2018 | 5' | Korea | Color | G



청춘사진
Young Love Can't Be Capture
Dir. 김미림 Kim Mi Rim
2018 | 10' | Korea | Color | G

수상 그 후 ㉕

제27회 경기도 건축문화상 사용승인 부문 금상 '부천시립 역곡도서관'

원미산과 역곡 공원 사이 자리 잡은 '책을 품은 숲'

총면적 1,494제곱미터,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로 건립

김현아 건축사 "숲·생태 의미 담을 수 있는 공간계획 위해 노력"

해마다 전국 각 지역에서는 그 지역에서 새로 지어진 건축물 중 탁월한 작품을 선정해 건축상을 수여한다. 심사위원들의 경탄을 자아내며 시기마다 건축문화를 선도했던 작품들은 주변 환경과 함께 잘 숨 쉬고 있을까? 대한건축사신문은 역대 수상작들을 다시 찾아 그 건축물들의 현재 모습을 살피고 설계를 담당했던 건축사와 건축주의 이야기를 듣는 기획을 마련했다. 스물네 번째 작품은 2022 강원건축문화상 대상 수상작 '춘천시 건강생활지원센터'이다.

역곡도서관 전경(설계자 김현아 건축사_H&H Design Group 건축사사무소) 사진=김현아

어릴 적 소설가 양귀자의 '원미동 사람들'을 재밌게 읽었다. 한창 경제 발전이 한창이던 1980년대, '한강의 기적', '3저 호황'의 이면, 별별 막장 인간 군상이 등장하는 이 작품을 통해 부천이라는 도시를 알았고, 그곳에서 하루하루 고단한 삶을 채워가는 이들의 삶을 응원하게 됐다.

역곡 근린공원 안에 자리 잡은 제27회 경기도 건축문화상 사용승인 부문 금상 수상작 '부천시립 역곡도서관'(김현아 건축사, H&H Design Group 건축사사무소)은 '원미동 사람들' 속 주인공들이 잠시 일상의 고단함을 내려놓고, 책과 함께 휴식을 취하는 곳이다. '책을 품은 숲'이라는 건축물의 부제가 너무도 잘 어울리는 그런 공간. 역곡 도서관은 대지의 특성을 활용해 자연의 모습과 조화를 이루는 지식 공간으로 구현됐다. 총면적 1,494제곱미터,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다. 지난 2019년 5월 개관했다.

역곡공원 안에 있는 특성을 살려 '숲 생태'를 테마로, 생태자료를 전시할 수 있는 생태갤러리, 야외 문화공간인 한낮 정원, 시민 휴게공간인 달빛정원 등으로 공간을 구성했다. 부천시는 사업 초기 수요조사 단계부터 건립 과정 내 건립추진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주민과의 소통의 장을 만들었으며, 지역주민들이 원하고 필요한 공간으로 만들고자 힘썼다.

원미동, 역곡동과 붙어 있는 원미산 끝자락 역곡근린공원 내 위치한 역곡도서관. 도서관 서쪽으로는 공원, 동쪽으로는 원미산의 풍광을 볼 수 있다. 마치 자연 속에 안긴 듯한 모습이다. 2010년대 중반부터 공공시설물 사이의 경계는 차츰 희미해지고 있다. 도서관도 마찬가지다. 단순히 책을 읽고 공부만 하는 공간이 아니라, 망중한을 즐기며 일상 속 쉼표를 찍을 수 있는 공간의 기능도 함께 담당하는 곳으로 재해석되고 있다.

설계자 김현아 건축사는 원미산과 역곡공원에 인접한 위치 특성을 고려해 자연과 잘 어우러지는 디자인을 통해 자연 속에서 문화를 경험하며 이용자들이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데 신경 썼다. 그 어느 건축물보다 주위 환경과의 조화를 염두에 둔 설계였다.

그래서 역곡도서관은 이러한 인식 변화를 훌륭하게 담아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도심에서 멀지 않은 숲에서 캠핑하며 책과 데이트할 수 있다. 위치적 특성을 살려 '숲 생태'를 테마로 지어졌으며 생태자료를 전시할 수 있는 생태갤러리, 야외 문화공간인 한낮 정원, 시민 휴게공간인 달빛정원 등으로 공간을 구성했다.

입면계획도 자연과 도서관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했다. 1층은 나무 패턴과 목재를 사용해 자연적 요소를 드러냈고, 2층에는 하늘의 구름과 별을 담은 패턴으로 역곡공원과의 어우러짐에 초점을 맞췄다. 다음은 부천시립 역곡도서관 설계자 김현아 건축사와의 일문일답이다. 서정필 기자

김현아 건축사와의 일문일답

김현아 건축사
(H&H Design Group 건축사사무소)

Q. 이 건축물을 설계하시게 된 과정과 설계 과정에서 특히 염두에 뒀던 점에 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부천시립 역곡도서관은 2017년 설계공모를 통해 당선된 작품입니다. 공공건축물에 관심을 두고 있던 터라 역곡도서관 공모 내용을 살펴보고 작은 도서관이지만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 같은 생각에 응모했었는데 좋은 인연이 되려고 해서인지 당선됐습니다.

역곡도서관은 총면적이 비교적 작은 편에 속하는데 발주처인 부천시는 그 면적에 매우 다양한 공간들을 담고 싶어 했습니다. 도서관 장서량을 충족하면서 숲, 생태, 만화의 특화 공간이 있고 육아 나눔 카페, 문화강좌실, 동아리방 등의 소통 공간을 두고자 했습니다. 저희는 부천시가 원하는 역곡도서관의 특성과 이미 자연 안에 있는 지리적 특성을 살려 '숲, 생태'의 키워드에 의미를 두고 설계를 진행했습니다.

Q. (앞 질문에서의) 염두에 뒀던 점을 어떻게 구현하셨는지요.

역곡도서관은 서쪽으로 열린 조망이 있고 동쪽으로 원미산이 위치하는 역곡 근린공원 내에 자리합니다. 위치적으로 자연과 연계된 장점이 있긴 하지만 대상지 자체가 다양한 레벨을 갖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해 고민하게 됐습니다. 지형 훼손을 최소화하면서 자연 레벨과 어울리는 배치 및 매스 계획과 숲, 생태의 의미를 담을 수 있는 공간계획, 그리고 이미 펼쳐져 있는 자연과 하나 되는 입면계획 하나하나에 앞서 말씀드린 의미를 담으려 노력했습니다.

Q. 설계 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어떻게 하면 발주처가 원하는 복합기능을 다 담고, 공원 끝자락에 위치하는 이 작은 공간을 지역주민에게 봉사할 수 있는 특화된 공간으로 만들 것인가가 큰 과제였습니다. 팀원들과 다양한 아이디어를 나누며 공간의 특화를 이끌어 최대한 담을 수 있는 특화 공간을 도출한 뒤 내외부 공간에 반영했습니다. 실시설계를 진행하면서는 대부분 공공건축물에서 발생하는 공사비 부족에 대한 문제를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역곡도서관은 타 공공건축물 공사비에 비해서도 매우 부족한 편이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점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모두 좋은 건축물이 나오길 바라서인지 발주처 담당자분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치고 설계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에 중점을 두어 결과물을 만들어 나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Q. 건축설계를 시작하면서 가진 건축적 지향점이 있다면?

건축설계를 시작하면서 가졌던 지향점은 시간이 흐르면서 다양한 경험을 하고 가치관이 바뀌면서 조금씩 변하고 다듬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현재는 진정성과 탁월한 전문성을 갖고 건강한 건축을 만들어가고자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행복 추구', '행복한 공간 만들기'입니다. 건축주가 저와 설계에 참여하며 행복감을 느끼셨으면 하는 것과 작품의 완성을 경험할 때 행복한 공간에서 행복한 시간(삶)을 살아가는 것, 사용자의 행복이 최고의 가치, 지향점입니다. 공공건축이 다양성이 존재하긴 하지만 같은 공간을 다양하게 해석하고 함께한다는 점이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Q. 그 지향점을 이 작품에 잘 반영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준공 후 역곡도서관이 이용자들에게 사랑받는 공간으로 자리한다는 소식을 들을 때 정말 보람됩니다. 이용자들이 그곳에서 현재와 미래를 행복하게 만들어 가셨으면 합니다.

Q. 이번 수상이 건축사님에게 어떤 의미인지?

몇몇 도서관을 설계하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도서관이 다양한 행위로 채워지고 문화와 지식, 만남과 휴식으로 공간이 더 풍부하게 채워지도록 많은 노력을 쏟았습니다. 그 노력에 대한 성과인 것 같기도 합니다.

Q. 근래 들어 관심을 두고 있거나 설계에 적용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개인적으로 재료적인 측면에서 다양성이 부족하지 않나 고민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재료, 그 중 그 건축물에 가장 합리적인 재료, 보편적인 것에 머무르지 않는 것. 그런 것들을 고민하게 되었고 요즘은 한국건축에 관심을 다시 두게 되었습니다. 고건축이 아닌 한국적인 것, 한국적인 요소, 한국적인 결, 그러한 것들을 고민하기 시작했고 우선 지식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넓혀가다 보면 깊이가 쌓일 듯해서요.

서울시, 9월~10월 '도시건축 답사' 프로그램 운영…8월 22일부터 9월 예약

2달간 매주 일요일 열려, 시내 8개 지역 건축물과 동네 살펴볼 수 있어

도시·건축 관심 있는 누구나 공공서비스예약 누리집(yeyak.seoul.go.kr) 통해 신청

서울시는 9월과 10월 매주 일요일마다 서울 시내 건축물과 동네를 함께 둘러보는 '2023 서울 도시건축 답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두 달간 총 8회가 진행되며, 도시·건축에 관심 있는 누구나 공공서비스예약 누리집(yeyak.seoul.go.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9월 답사는 8월 22일 9시부터, 10월 답사는 9월 12일부터 회차별 20명 선착순 마감한다.

'2023 서울도시건축 답사'에서는 '안목의 성장', '번쩍이는 순간들' 두 가지 주제 아래 선정된 8개 지역을 답사하며 건축물과 동네 이야기를 들어본다. 건축물을 둘러싼 동네 전체를 함께 이해하는 '영역적 답사'로 기획돼 건축과 지역을 보다 넓게 이해할 수 있다.

건축사 등 전문가 동행해 참가자에게 깊이 있는 해설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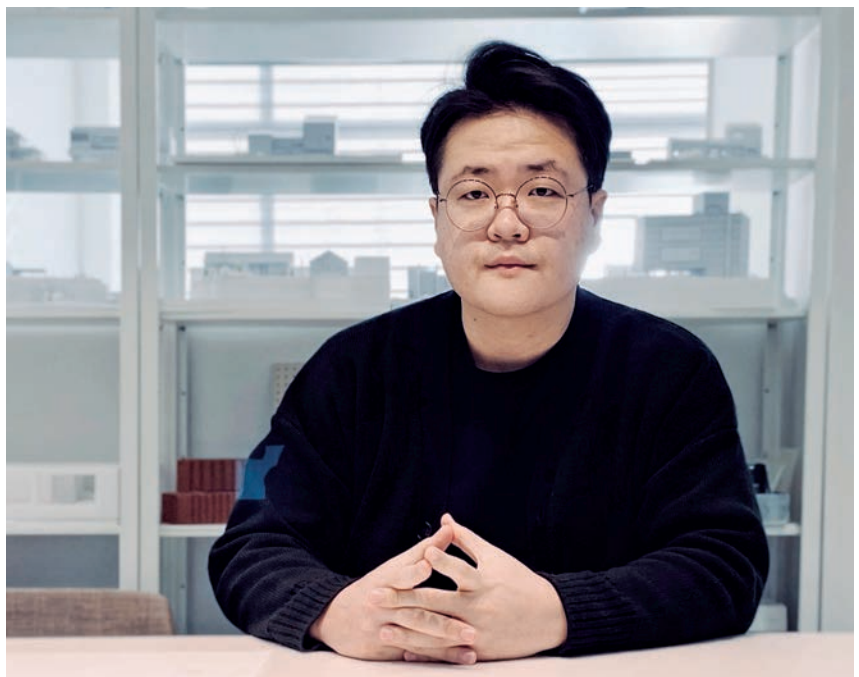
각 회차에는 건축사 등 전문가가 동행해 참가자에게 깊이 있는 해설을 제공한다. 답사 전 답사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서울도시건축센터(종로구 송월길2)에 모여 전문가로부터 답사할 지역에 대한 사전 강의를 청취하는 시간도 마련된다.

참가비 등 '2023 서울 도시건축 답사'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서울도시건축센터 누리집(sca.seoul.go.kr)을 확인하거나 서울도시건축센터(02-739-2900)로 문의하면 된다.

장영호 기자

I AM KIRA **신입 회원에게 듣는다** – 최성경 건축사(강원특별자치건축사회)

최성경 건축사 "대한건축사협회를 통해 건축사 간의 폭넓은 교류가 이뤄지기를 바랍니다"



최성경 건축사(무화 건축사사무소)

신진건축사들은 꿈이자 목표인 건축사 자격을 취득하고, 협회 가입에 이르기까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학부졸업, 실무수련, 수험생 생활, 그리고 창업까지 모두가 쉽지 않은 선택의 연속이고, 지난한 과정이기 때문이다.
'신입회원에게 듣는다'는 긴 노력의 시간 끝에, 사무소 개소에 성공한 건축사들을 만나는 시간으로 구성된다. 삶의 에피소드와 더불어 창업기 등 동료이자 선후배가 될 이들을 조명함으로써 활력 넘치는 업계, 소속감과 연대의 가치를 공고히 할 수 있길 기대해본다.

"공간에도 생명이 있고 쓰임이 있습니다. 경직된 건축은 시간이 흐르고 상황이 바뀌었을 때 쓸모를 잃고 사라지거나 방치돼 그 가치를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좋은 건축은 '살아있는 공간'입니다.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대응하고 오랫동안 쓰일 수 있는 살아있는 공간을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최성경 건축사는 자신의 건축관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공간에 담길 올바른 쓰임을 찾고, 살아있는 공간을 만들어가는 그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Q. 건축사사무소 개소 소감과 에피소드가 궁금합니다. 소개를 부탁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에 자리를 잡은 것은 10년 전 진행했던 한 프로젝트 때문입니다. 그때 진행했던 프로젝트를 계기로 낯선 도시에 터를 잡았고 5년이 지난 지금 든든한 동료를 만나 온전히 정착했습니다. 건축사사무소를 개소할 때까지의 시간을 돌이켜 보니 지나온 과정에서 습득한 것들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목수가 되고 싶어서 진학한 학교에서 디자인 교육을 받았고, 건축사사무소에서 첫 직장을 얻었습니다. 시공사에서 수년간 현장의 업무를 배우고 난 뒤 건축사로서 일하고 있습니다. 개소 후 5년 정도는 어려울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생각했던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 오만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건축사로서 배움과 책임은 끝이 없다는 걸 매순간 배워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품고 가야할 사명감이 크다는 걸 깨닫고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Q. 건축사로서 어떤 꿈과 비전이 있는지, 또 의무가입을 기점으로 건축사협회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무엇인지 소개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사 업무를 하면서 물질적 풍요는 멀리 있지만 보람은 노력으로 구할 수 있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마다 과정에서 즐거움을 만나고 맺음에서 보람을 느끼려고 합니다. 주로 소규모건축물을 다루고 있습니다. 규모에 상관없이 건축주의 절실함을 느낍니다. 건축주 입장에서는 큰 결심으로 시작되는 일이니까요. 그 마음을 이해하고 현명하게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의 현명함은 개인적 경험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야기를 듣는 것을 통해 쌓아갈 수 있습니다. 제가 의무가입이 확정되기 전임에도 개소와 동시에 협회를 가입한 것도 비슷한 맥락에서입니다. 건축사 한 명의 경험은 한정적이지만, 그 경험이 모이면 큰 힘이 됩니다. 연고 없는 도시에 정착했지만 지역 내 선배 건축사님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정착할 수 있었습니다. 의무가입을 기점으로 대한건축사협회를 통해 지역을 넘어 건축사 간의 폭넓은 교류가 이뤄지기를 바랍니다.

Q. 실제 업계에 몸담으면서 느낀 애로사항이나 건축사 업무 시 불편사항 등 제도적 개선점을 제시한다면?

건축사사무소를 개소한 뒤 유선이나 방문 상담이 허무하게 끝나는 경우가 잦았습니다. 계획 설계를 무료로 해달라고 하거나 필요한 정보를 잔뜩 물어보고 다시 연락이 없는 경우를 몇 번 겪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상담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상담료는 전액 기부를 하겠다고 내걸면서 세 가지 명분을 내세웠습니다. 첫째, 전문 지식을 제공하는 것의 가치를 인정받고, 책임 있는 내용을 전달하겠다. 둘째, 무료 상담을 위해 시간을 쓰는 것은 비용을 지불하고 일을 맡긴 건축주에게 예의가 아니며 우회적인 피해가 된다. 셋째, 건축사가 쓰는 시간 일부가 힘든 상황의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 초기에는 상담료를 듣고 바로 나가는 분도 있었지만 지금은 상담료 체계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일의 집중도와 효율이 높아짐은 물론이거니와 불편한 인연도 사라지게 됐습니다.

옛 기무사 관사를 예술인의 작업실로 변경한 춘천예술촌
설계=최성경 건축사, 무화건축사사무소

소나무 정원을 바라보는 학교 도서관으로 리모델링을 진행한 주문진 중학교 도서관
설계=최성경 건축사, 무화건축사사무소

Q. 앞으로의 계획과 선·후배 등 동료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말씀은 무엇이 있을까요?

개인적으로 건축사로서의 큰 뜻을 세우기보다 마주한 일에 성실히 임하는 게 목표입니다. 평소에 '흐르는 대로 흘러간다'는 말을 자주 하는데요. 여러 고민 속에서 제가 찾은 답입니다. 마주하고 있는 현안에 집중하고, 그것을 헤쳐 나가는 과정에서 얻은 지혜를 쌓아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건축사 통계 자료를 보면 1인 건축사사무소가 대부분입니다. 건축사의 업무 범위와 책임은 커져가는 상황에서, 앞으로의 건축사사무소의 형태도 달라질 텐데요. 동료 건축사들과 고민을 공유하고 진지한 논의를 해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같은 자리에서 동료로서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조아라 기자

MY 부동산 뉴스 격주간의 엄선된 부동산뉴스를 콕 집어 전달합니다

올해 11월 공공주택 분양부터 2자녀도 특별공급 대상

국토교통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행정예고

▶ 영구·국민·행복 가구원수별 입주신청 가능면적(안)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이상
영구·국민·행복	~35m2	26~44m2	36~50㎡	45㎡~

앞으로 올해 11월부터 공공분양주택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는 '다자녀'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 이상으로 바뀌고, 올해 3월 말 이후 출산한 가구에 대해서는 공공주택 소득·자산 요건이 자녀 1인당 10% 포인트씩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8월 28일부터 입법·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정부가 발표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에 대한 후속조치다. 먼저 현행 3자녀 이상인 공공분양 다자녀 특별공급 대상이 2자녀 가구로 확대되고, 자녀 수 배점에 2자녀 항목이 추가된다. 다자녀 기준 변경은 11월부터 시행 예정이며, 시행 이후 분양공고가 나온 공공주택부터 적용된다.

또 올해 3월 28일 이후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는 미성년 자녀 1인당 10% 포인트, 2자녀 이상은 최대 20% 포인트까지 소득·자산 요건 완화 적용을 받는다.

▶ 공공분양 다자녀 기준 개선

현 행	
대상가구	자녀수 배점(40점)
3자녀 이상	3명(30점), 4명(35점), 5명↑(40점)
▼	
개 선	
대상가구	자녀수 배점(40점)
2자녀 이상	2명(25점), 3명(35점), 4명↑(40점)

아울러, 자녀가 많은 가구가 우선적으로 넓은 면적의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세대원 수를 고려한 적정 공급면적 기준이 마련된다.

장영호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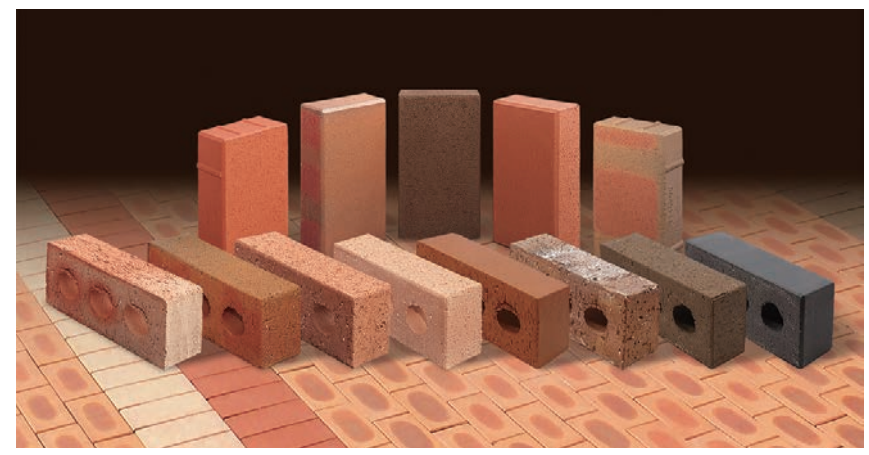
주목! KIRA 추천건축자재업체

삼한씨원 한승윤 대표 "친환경 황토벽돌로 사람이 가장 살기 좋은 생활환경 제공에 앞장"

하루 30만 장, 연간 1억 장 이상의 생산량에도 불량률 제로
국내 품질 기준 뛰어넘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고품질 제품 생산
연간 5억 원 규모의 전폭적 R&D 투자로 지속적인 품질 상향화

삼한씨원 한승윤 대표

유럽 첨단 자동화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삼한씨원 예천공장


삼한씨원 친환경 황토벽돌

100% 천연 흙만을 배합해 생산하는 삼한씨원의 황토벽돌은 친환경 건축, 포장재로 인정받고 있다. 꾸준한 기술 개발과 엄격한 품질을 보증하는 만큼 금년도 대한건축사협회 우수 건축자재로 선정됐다. 천연습도조절, 단열 및 축열(蓄熱), 공기정화, 항균성, 악취·이산화탄소 흡착은 물론 열섬화 현상 완화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사람과 자연에 무해한 친환경벽돌'을 만드는 삼한씨원의 한승윤 대표를 만나봤다.

Q. 지난 5월 대한건축사협회로부터 추천건축자재로 선정 됐습니다. 3개월 동안 두 번의 심사를 거쳐 우수성을 인정받게 됐는데, 어떤 제품이 수상하게 됐는지 소개를 부탁합니다.

100% 천연 흙으로 생산되는 삼한씨원의 황토벽돌, 황토바닥벽돌은 황토, 점토, 고령토 등 천연원료 배합만으로 생산되는 친환경 건축, 포장재입니다. 천연습도조절, 뛰어난 단열 및 축열(蓄熱), 공기정화, 우수한 항균성, 각종 악취·이산화탄소 흡착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타 자재 대비 낮은 표면온도로 여름철 도시 열섬화 현상을 지속적으로 완화해 보행자의 더위를 식혀주고, 냉방 및 난방의 부하를 줄여 건물의 에너지 절감에도 기여합니다. 특히 흙의 특성을 이용한 배합으로 색상을 표현하기 때문에 탈색이나 변색이 없는 천연색을 가집니다. 1,300℃ 이상의 고온에서 소성하는 제품으로 강도가 높고 동결융해 저항성이 뛰어나 반영구적으로 사용 가능한 것도 특징입니다.

더불어 국내에서도 자주 발생하는 지진으로 인해 내진설계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삼한씨원의 내진 연결철물 시스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경북대학교, 한국강구조학회와 함께 규모 6.5의 지진에도 안전한 내진 연결철물 시스템을 개발했고, 이에 대한 구조 성능 평가 연구에서 내진 안전성을 검증받았습니다.

Q. 순수하게 흙만을 100% 배합해 150여 종의 자연 색상과 다양한 규격의 제품을 생산 중입니다. 국내 KS와 미국 ASTM 기준을 뛰어넘는 엄격한 자체 품질 기준을 유지하는 삼한씨원의 기술력에 대해 말씀해 주신다면.

삼한씨원은 1990년 경상북도 예천에 생산 공장을 설립하고, 148,500㎡(45,000평) 부지에 총 450억 원을 투자하여 이탈리아 모란도(Morando)사와 독일 링글(Lingl)사 스마트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함으로 벽돌 품질의 혁신을 이뤘습니다. 첨단 자동화 생산시스템 구축을 통해 황토벽돌 업계의 난제였던 다양한 사이즈와 색상, 균일한 표면처리, 고강도, 뒤틀림 및 크랙 방지 등을 해결해 뛰어난 품질의 황토벽돌 공급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하루 30만장, 연간 1억장이 넘는 생산량에도 불량률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삼한씨원 황토벽돌은 ▲흙을 배합하고 분쇄하는 제토 ▲가공된 원료를 원하는 형태로 만드는 성형 ▲원료에 들어있던 수분을 제거해 가소성을 높이는 건조 ▲제품에 최대 강도를 부여하기 위해 고온으로 구워내는 소성의 단계를 거쳐 생산됩니다. 원료의 품질을 높이고, 배합과 성형이 용이하도록 3주간의 저장 및 숙성을 가능하게 하는 사이로, 원료의 특성에 맞는 건조시간과 습도, 풍량, 풍속을 자동 조절하여 제품을 건조하는 건조실, 메인 컴퓨터가 자동으로 온도와 속도를 제어해 1,300℃ 이상의 열을 일정하게 관리해주는 소성로 등 생산 전 공정에 제품의 품질과 균일성을 높이기 위한 최고의 기술이 집약되어 있습니다.

또한, 고품질의 황토벽돌을 생산하기 위해 엄격한 자체 품질기준을 적용합니다. 한국산업규격(KS)의 건축용벽돌(190×90×57㎜) 사이즈 오차범위는 ±5mm지만 삼한씨원은 ±1mm의 품질기준을 적용합니다. 사이즈 오차가 크면 색상, 강도, 내구성, 흡수율 등 벽돌의 품질이 낮아지고, 오차가 적을수록 시공 효율성, 색상과 강도의 균일성이 높아집니다. 바닥용 벽돌의 경우 벽돌조합 단체표준은 압축강도 55.2MPa이상이지만, 삼한씨원은 65.0MPa이상의 기준으로 생산합니다. 압축강도가 높을수록 내구성이 뛰어나며 깨짐, 파손, 동해 피해에 안전해 오랜 기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삼한씨원 황토벽돌은 뛰어난 품질과 내구성을 인정받아 조달청 품질보증조달물품(구. 자가품질보증물품, 1호)과 조달우수제품(6회 연속)으로 선정됐습니다.

Q. 삼한씨원만의 경영 철학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흙의 유용함을 통해 사람이 살기 좋은 세상, 사람이 편안한 생활공간을 만든다'는 개념을 바탕으로 사람과 자연에 도움이 되는 황토벽돌을 생산합니다. 고품질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기본과 원칙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일부 업체들의 경우 원가 절감을 이유로 흙에 연탄재, 플라이애쉬 등 산업폐기물을 혼합해 유해성분 함유, 저강도로 인한 제품 수명 단축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데 삼한씨원에서는 오직 100% 흙만 사용해 친환경 황토벽돌을 생산합니다.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의 K마크 시험을 통해 납(Pb), 비소(As), 수은(Hg) 등 7대 유해물질이 불검출 되었음을 검증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생산 공정에도 등유를 대신해 LNG 천연가스 연료를 사용하여 탄소배출 저감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원재료부터 생산 공정에 이르기까지 모든 부분을 통해 사람과 자연에 무해한 제품을 만든다는 원칙을 지키고 있습니다. 또한 연구·개발(R&D)분야에 연간 5억 원 규모의 전폭적인 투자를 통해 지속적인 품질 상향화를 이뤄나가고 있습니다.

Q. 도시 열섬화 현상 완화 효과 등으로 황토벽돌에 대한 관심은 국내외를 넘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삼한씨원의 해외 수출 실적과 함께 수출 경쟁력 확보 방안에 대해서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삼한씨원의 친환경 황토벽돌은 국내를 넘어 해외 시장에서도 인정받고 있습니다. 국내 품질 기준을 뛰어넘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고품질 제품을 생산하며, 고객 니즈에 맞춘 다양한 색상과 사이즈의 벽돌을 생산함으로써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2000년 첫 수출을 한 이래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와 대만에 지속적으로 수출을 하고 있으며, 근래 우크라이나와 몽골, 일본으로도 수출 길을 넓혔습니다. 향후 중국을 비롯해 주변 나라로 수출시장을 다변화할 계획입니다.

Q. 대한건축사협회 회원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과 함께 신제품 출시, 기술개발 방향 등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언급 부탁합니다.

아직은 황토벽돌의 쓰임새가 한정돼 있고, 고층건물에는 적용하기 어렵다는 선입견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내진철물 개발로 벽돌 건물의 고층화를 실현하고 있으며, 다양한 형태의 건축물 설계에 적용하고자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 종류의 재료들과 조화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색채 및 입면 디자인을 지원하고 있고, 사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디자인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황토바닥벽돌은 도로 포장재로 사용할 경우 통행 환경 개선, 도시 열섬화 현상 완화에도 탁월한 효과를 누릴 수 있으며, 다채로운 색상과 사이즈로 보행로의 환경 개선과 심미성을 높이는 데도 도움을 줄 것입니다. 앞으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수요처를 늘려 나가기 위해 지속적으로 홍보하려고 합니다.

더불어, 최근 수요가 많아지고 있는 롱브릭과 투수블록을 개발하고 생산하는 데 집중 투자할 계획이며, 색상 및 사이즈, 질감의 다양화를 통해 더욱 다채로운 제품으로 고객 만족을 이루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대한건축사협회 회원분들과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속적인 성원 부탁드립니다.

조아라 기자

서울공예박물관, 올해 국토대전에서 건축물 부문 장관상 수상

"공예적 감수성 느껴지는 열린 예술공간 조성해 나갈 것"

서울공예박물관이(설계자 이용호 건축사, 주.행림종합건축사사무소) 2023 대한민국 국토대전에서 공공·문화건축물 부문의 '국토교통부장관상'을 수상했다. 국토부는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공모 신청을 받아 1차 서류심사를 통과한 작품을 대상으로 2차 현장 심사를 진행했으며, 1·2차 전문가 심사와 국민심사를 바탕으로 최종 수상작을 선정했다.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대한민국 국토대전'은 '품격있는 국토, 아름다운 경관'을 주제로 국토 및 도시공간에서 경관디자인의 향상을 이룬 창의적 사례를 평가해 시상하는 행사다. 김수정 서울공예박물관장은 "국토개발, 도시계획과 건축 분야 최고 권위의 상으로 자리 잡은 대한민국 국토대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상을 수상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며 "공예적 감수성이 느껴지는 열린 예술공간으로 꾸준히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지면 관계상 게재하지 못한 기사는 차기 호에 보도됩니다.

서울특별시건축사회, 강원·대구광역시건축사회와 업무협약

서울특별시건축사회가 각 시·도건축사회와 적극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7월 4일에는 강원특별자치도건축사회와 업무협약식을 체결한데 이어 7월 18일에는 대구광역시건축사회와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정책·기준·기술 및 사업 정보 공유, 관련 교육 및 세미나 개최 시 협력, 지역 회원 간 정기 교류 활성화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건축 현안에 공동 대응하고, 건축 정책 및 기준 개발에 있어서도 상호 협력할 방침이다.

서울특별시건축사회, 글로벌건축최고위과정 제26기 수료식

서울특별시건축사회는 7월 6일 글로벌건축최고위과정 제26기 교육과정을 수료한 수강생을 대상으로 축하의 장을 마련하고, 동문들과의 친목교류를 위해 수료식을 개최했다. 수료식에는 제26기 수강생 38명 중 33명과 총동문회, 임원, 교육위원회 위원 등 62명이 참석했다.

한편, 글로벌건축최고위과정 제27기는 8월 31일 개강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특별시건축사회, 자전거 동호회 등록 승인

서울특별시건축사회는 7월 14일 열린 이사회에서 자전거동호회를 등록 승인했다. 회원 간 친목과 단합을 도모

하고, 심신을 단련하고자 출범한 자전거동호회는 6월 22일 창립총회를 거쳐 이번에 등록 승인을 마쳤다. 동호회는 매월 1~2회에 걸쳐 자전거 강습과 한강 라이딩을 실시하고, 서울시건축사회 홍보를 위해 자전거 국토 종주에도 도전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부산광역시건축사회, 어린이건축한마당 개최

부산광역시건축사회가 건축 환경에 대한 어린이들의 이해를 높이고, 건축적 재능과 창의력 증진을 목적으로 개최한 '제26기 시민건축대학-건축사와 함께하는 어린이건축한마당'이 7월 22일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부산시민공원 시민사랑채에서 개최된 2023 어린이건축한마당에는 '집과 함께 떠나는 여행! 집이 살아 있다면?'을 주제로 약 168명의 초등학생이 참가해 상상의 나래를 펼쳤다. 행사는 건축 강연을 시작으로 상상화 그리기(1~3학년)와 상상모형 만들기(4~6학년) 대회가 저·고학년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대회가 끝난 후에는 학생과 학부모들을 위한 퀴즈 및 게임이 진행되고 경품 추첨이 이어졌다.

박동조 부산시건축사회 부회장은 개회식에서 "참가 어린이들 모두 즐거운 하루가 되었으면 하고, 건축사라는 직업에 대해 알고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울산광역시건축사회, '2035 울주군 경관계획수립 주민공청회'에 토론자로 참여

울산광역시건축사회는 울주군이 주최하는 '2035 경관계획수립 주민공청회'에 건축분야 토론자로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8월 1일 울주군청 1층 문수홀에서 개최된 공청회에는 김원효 울산시건축사회장이 참석해 ▲두동 전원주택 자연경관훼손 및 난개발 방지 차원의 경관계획 수립 ▲범서 입암뜰 도시 개발 진행시 주변 태화강 전망 및 자연경관 보호차원의 중장기 경관계획 수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울주군의 주민참여 의식함양 차원에서 시가화 진행 중점관리 구역에 경관협정 제도를 도입할 것과 이에 따른 운영방안으로 보상적 인센티브, 유도적 인센티브, 마이너스 인센티브(규제)를 항목별로 구분해 적용할 수 있는 제도적인 근거 마련 필요성을 제시했다.

울주군은 향후 울주군의회 의견 청취 및 경관 심의, 울산시 경관위원회 심의, 최종 보고회를 거쳐 오는 11월 용역을 완료할 계획이다.

경기도건축사회, 한준호 국회의원과 간담회

경기도건축사회는 8월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한준호 의원을 만나 건축사 업무와 관련 주요 사안들에 대해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경기도건축사회 정내수 회장, 양정식·조영수 부회장, 고양지역건축사회 권혁규 회장, 김희수 부회장이 참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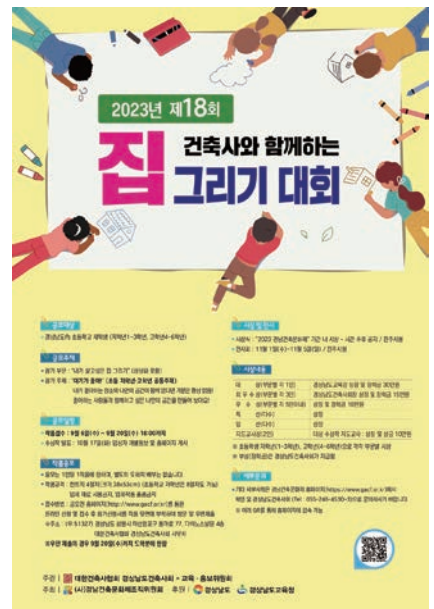
정내수 회장은 "건축사가 건축설계, 감리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책임과 의무만 요구될 뿐 업역축소, 합리적인 대가 미비, 인력 부족 등 업무환경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며 "의무가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후속 보완 작업이 이뤄져야 하며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준호 의원은 "제안해주신 건축 관련 제도개선 내용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고 연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충청북도건축사회, 수재의연금 1,083만 원 기탁

충청북도건축사회는 8월 9일 청주시청을 방문해 수재의연금 1,083만원을 기탁했다. 지난 7월 발생한 호우 피해로 충청북도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는 등 피해가 집중됐다.

충청북도건축사회 정운기 회장은 "수재민들의 피해 복구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상남도건축사회, 건축사와 함께하는 제18회 집 그리기 대회



경상남도건축사회는 학생들의 숨겨진 건축적, 미술적 재능을 발견하고, 미래의 건축문화를 선도하기 위해 9월 6일부터 집 그리기 대회를 작품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난 2006년 시작돼 올해를 18회를 맞는 집 그리기 대회는 대상 수상작에게 경상남도교육감상이 각 부문별 최우수상·우수상·특선·입선 수상자에게 각각 상장과 부상이 시상된다.

경상남도건축사회, 제1회 중·고등학생 건축 UCC 공모전 개최

경상남도건축사회는 지역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건축 UCC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9월 6일부터 20일까지 작품을 접수하고, 공간의 변화가 우리에게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담은 '학교가 달라졌어요'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행사는 (사)경남건축문화제조직위원회 주최로 경상남도건축사회가 주관하고, 경상남도와 경상남도교육청이 후원하며 수상작은 다가오는 11월 1일~5일까지 진주시청에서 개최되는 '2023 경남건축문화제' 행사장에 전시될 예정이다.

한편, '2023 경남건축문화제'는 공모전 수상작을 포함한 2023 프리츠커건축상, 경상남도 우수주택 수상작과 같은 다양한 건축 작품과 도민들을 위한 특별강연과 건축상담코너 등 6개 부문 19개 파트로 구성된다.

자세한 사항은 경남건축문화제 누리집(www.gacf.or.kr) 또는 전화(055-246-4530~3)로 문의하면 된다.

편집출판팀

건설기술인 교육·훈련 이수안내

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건설기술인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소양과 지식을 습득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최초교육, 승급교육, 계속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최초교육 및 계속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건설기술인 교육을 이수하지 않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이수시기에 맞춰 교육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훈련 대행기관<국토교통부 지정>

▶ 협회홈페이지(www.kira.or.kr) -> 협회업무 -> 건설기술인관리 -> 교육훈련탭 참조

□ 최초교육(기본교육+전문교육)

▶ 최초교육 중 기본교육

최초교육 중 기본교육 대상자	이수시기	이수시간
건설기술업무를 수행하려는 건설기술인	최초로 건설기술 업무를 수행하려는 경우	기본교육 : 35시간
※ 건설기술 업무 : 설계. 시공, 건설사업관리, 품질관리 등(**건축사법 설계는 제외**)		

▶ 최초교육 중 전문교육

최초교육 중 전문교육 대상자	이수시기	이수시간
설계, 시공 등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건축사법 설계는 제외**)	최초로 설계, 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려는 경우(발주청 소속 건설기술인의 경우 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하려는 경우)	전문교육 : 35시간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건설엔지니어링업자에 소속되어 최초로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려는 경우	전문교육 - 중 · 초급 : 70시간 - 특 · 고급 : 105시간
품질관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 소속되어 최초로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려는 경우	전문교육 : 35시간

□ 승급교육(전문교육)

직무구분	이수대상(현재 등급 기준)	이수시간
설계·시공	초급·중급·고급 건설기술인	35시간 이상
건설사업관리	초급 건설기술인	35시간 이상
	중급·고급건설기술인	70시간 이상
품질관리	초급·중급·고급 건설기술인	35시간 이상

□ 계속교육(전문교육)

▶ 각 직무의 업무 수행 기간이 3년을 경과하기 전 이수

직무구분		이수대상	이수시간
설계·시공		특급 건설기술인 / ① 현장배치기술인 / ② 책임기술인	35시간 이상
건설사업관리	일반 계속교육	초급·중급 건설기술인	35시간 이상
		고급·특급 건설기술인	70시간 이상
	안전관리 계속교육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16시간 이상
품질관리		초급·중급·고급·특급 건설기술인	35시간 이상

문의처 : 대한건축사협회 경력관리팀(02-3415-6842~8), 시·도건축사회

목조건축 산책

이동흡 동국대학교 바이오환경과학과 객원교수
heub2575@gmail.com

자연과 건축물의 연결 ⑤ 우리는 왜 목재를 사랑할까?

아이 러브 우드(I LOVE WOOD) 캠페인 공식이미지

어린아이들은 눈으로 봤을 때 흥미와 관심이 끌리면 만져보고 싶어 한다. 이는 관계 맺기의 시작으로 함께 살아가는 감각을 익히기 위함에서 비롯된다. 공공장소에 사람의 손길이 닿는 목재는 손 얼룩이 져 있다. 사람들이 얼마나 목재를 많이 만져보았는지 한 눈으로 가름할 수 있다. 콘크리트나 강재에서는 볼 수 없는 현상이다. 이는 목재와 더불어 살아가고 싶다는 무의식적인 행동의 발로(發露)로 목재 사랑의 징표라고 생각한다.

일본을 대표하는 건축가 쿠마켄코(隈研吾)는 목재를 통해 인간 뿌리의 가설을 찾고 있다. 그는 "나무를 사용하면 그 자체로 여느 때와 다른 공간이 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건축이란 형태라고 배웠지만, 목조건축에는 모양을 뛰어넘는 매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질감일 수도 있고 직접적으로 인간의 몸에 와닿는 무언가일 수도 있습니다. 천이나 돌과 같은 물질과는 확연하게 다른 생물이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목재를 사랑할수록 같은 생물끼리의 대화가 서로 통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1]라고 경험에서 얻은 가설을 정리하고 있다.

> 목조건축에는
> 모양 뛰어 넘는 매력 있어
> 나무 결과, 옹이 적당히 사용하면
> 자연감 높여줘

목재의 무늬, 옹이, 색, 명암, 그리고 다른 표면적 특징들은 우리의 지각에 영향을 준다. 우리가 목재 한 조각을 볼 때, 관심은 무늬의 패턴과 표면 색상에 집중된다. 뇌에서는 목재 입자와 표면 모양을 통해 순간적으로 재료의 종류를 표착하고 그 물체의 질감과 색상 등에 따라 목재를 해석하는 이미지가 처리된다.[2] 그러므로 목재에 대한 시각적 경험을 유도하기 위해 목재 무늬와 같은 나무결을 숨기지 말아야 한다. 또한 옹이도 적당하게 사용하는 것이 좋다. 너무 많은 옹이는 응력 감소를 가져오지만, 시각적으로 적당하게 배치되면 오히려 자연감을 높여 준다. 또한 색상은 우리 몸에서 호르몬 분비의 균형을 조절하게 되므로 목재 선호도는 색상에 따라 좌우된다. 도장 처리되지 않은 목재는 노란색에서 빨간색 스펙트럼의 색을 반사하는데, 이때 반사되는 색상은 우리 몸이 자연스러운 잠을 청하는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균형을 증가시켜 인체 시계에 작용하면서 수면을 촉진한다.[3] 이러한 이유에서 따뜻한 색상의 붉은 목재가 선호될 수 있지만, 잠재적으로 목재의 시각적 경험에서 오는 진정 효과도 무시할 수 없다.

목재에 대한 사랑은 생활 속의 작은 변화에서 시작된다. 산림청은 기후 위기시대 생활 속 목재 이용을 실천하는 아이 러브 우드(I LOVE WOOD) 캠페인[4]을 벌이고 있다.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올해의 챌린지는 9월 말까지 진행한다. 도전 방법은 목재 이용을 다짐하는 내용과 함께 양 손가락으로 목재를 표현하는 더블유(W) 영상을 챌린지 인스타그램 공식 계정(@2023_ilovewood) 또는 페이스북(@대한민국산림청)에 게시하면 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나를 위해, 우리 모두를 위해, 기후변화시대 탄소를 줄이는 아주 쉽고 지혜로운 생활 속 목재 이용 캠페인에 많은 분의 동참을 당부하고 있다.

1) 建築家·隈研吾が語る木の「魅力」と「可能性」Wood change. column vol.8 (2021.09.03.)
2) Biederman, I. (1987). Recognition-by-components: A theory of human understanding. Psychological Review, 94(2), 115-147. https://doi.org/10.1037/0033-295X.94.2.115
3) Kandel, E. R., Schwartz, J. H., Jessell, T. M., Siegelbaum, S. A., & Hudspeth, A. J. (Eds.). (2013). Principles of Neural Science (5th ed.). New York: McGraw Hill.
4) https://litt.ly/ilovewood

지역답사수첩

지역답사수첩은 직접 답사했던 일정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공유하고 싶은 일정이 있으시면 대한건축사협회 편집실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바다와 가장 가까운 기차역, 정동진역(正東津驛)

정동진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강동면 정동진리에 있는 해변 및 공원 일대를 가리키며, 강릉 시가지에서는 남쪽으로 약 18km 떨어진 지점에 있다. 해맞이 장소로 매우 유명한 장소이며, 매년 12월 31일이면 호미곶, 간절곶 등과 같이 새해 해돋이를 보기 위한 사람들이 몰리는 곳 중 하나다.

정동진이라는 지명은 조선시대 한양의 광화문 기준으로 정동(正東)쪽에 있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그러나 현대의 측량기술로 측정한 실제 정동쪽은 지금의 정동진에서 직선거리로 남쪽방향으로 15㎞ 지점에 위치한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일출로 389-1(대진마을)'이다.

정동진역은 세계에서 바다와 가장 가까운 역으로 기네스북에 등재되어 있다.

모래시계의 추억

1995년 SBS에서 방영한 '모래시계'는 한국 드라마 중 올타임 넘버원으로 꾸준히 거론되는 작품이며, 광복 이후 대한민국의 현대 산업화 및 민주화 시대를 다룬 작품을 논할 때 빠지지 않는 명작이다. 평균 시청률 46%를 기록하였으며, 시청률이 가장 높았던 때는 최종회로, 무려 64.5%를 기록하였다.

드라마에서 윤혜린(고현정)이 광주행 열차를 기다리다가 3번 승강장에 있는 소나무 옆에서 경찰에 잡혀가는 모습이 나온다. 정동진역이 등장했던 8화가 방영되던 날 시청률은 43.9%를 기록해 정동진역이 전국적으로 유명세를 타기 시작했다. 바람이 많이 부는 흐린 날 소나무 한그루와 파도가 밀려오는 해변의 기찻길은 작품 속 풍경의 백미로 손꼽힌다. 윤혜린이 체포되던 그 역은 열차에서 내리자마자 동해를 볼 수 있는 관광 명소, 해돋이 명소로 떠오르면서 사람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다. 통일호도 통과하고 비둘기호나 서던 역이 이젠 KTX가 필수정차하는 역으로 위상이 엄청나게 올라갔다.

바닷가 간이역

정동진은 현재 위도상으로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에 있는 '도봉산'의 정동쪽에 위치하고 있다. 정동진은 신라 때부터 임금이 사해 용왕에게 친히 제사를 지내던 곳으로 알려져 왔으며, 2000년 국가지정행사로 밀레니엄 해돋이 축전을 성대하게 치른 해돋이 명소이기도 하다.

정동진역은 바다와 매우 가깝게 붙어있기 때문에 플랫폼에서 내려가면 바닷가가 바로 앞에 보인다. 2010년까지만 해도 3번 승강장에서 해변으로 나가는 통로가 있었지만 레일바이크가 승강장과 해변 사이를 지나가게 되면서 막히게 되었다. 펜스를 억지로 넘어갈 경우 역무원이 제지하기 때문에 인근 모래시계공원 혹은 역 주차장으로 가서 진입해야 한다. 이 역뿐만 아니라 영동선 '동해~안인' 구간은 바다에 거의 붙어 가서 창가 쪽 자리가 인기가 많다. 심지어 파도가 높게 이는 날엔 유리창에 바닷물이 튀기도 한다.

정동진역에서는 정동진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레일바이크가 있으며 정동진역에서 출발해 '모래시계 공원'을 돌아 정동진을 순환하는 코스를 제공한다.

정동진 해변 산비탈에 '썬크루즈 리조트'라는 선박 형태로 건조 건축된 4성급 호텔이 있다. 일출을 보려면 정동진 해변보다 높은 데 있는 썬크루즈 쪽이 더 낫다. 이 특이한 호텔은 외신에서도 몇 번 짧게 언급된 적이 있고, 외국 웹에서 '세계 각지의 합성 같은 실제 사진 모음'에 소개되기도 하였다. 다만 개발 비판론자들은, 오히려 정동진의 경관을 망쳤다고 비판하는 소수의견도 있다. 하지만 해돋이 명소로 손꼽혔던 정동진은 바다와 철도를 기반으로 주변에 여러 관광지가 만들어지면서 더욱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곳이 되었다.

출처 : 나무위키

주소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강동면 정동역길 17 (정동진역)

글·사진=김진섭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라온

우리도 방학이 필요해

건축과 삶

박유리 건축사
두꺼비 종합건축사사무소
〈서울특별시건축사회〉

AI시대이다. 이제는 그림과 음악, 소설도 인공지능이 만든다. 기획서 제작은 물론 예술창작에서 전문분야까지 인공지능이 한다. 법률자문이나 건축규모 검토도 프로그램을 통해서 가능하고, 최근에는 건축 이미지를 넣으면 비슷하지만 다른 대안 건축 디자인도 인공지능이 제시해 준다. 오! 놀라운 시대다. 가수 윤하가 부르는 노래는 AI가 불고기버거로 만든 노래란다. 황당하면서 재밌다. IoT, AI, 가상화폐, 가상공간, 이렇게나 세상이 빠르게 바뀌었구나 싶으면서 나만 뒤처지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이제는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에서의 소통이 훨씬 익숙해졌다. 인플루언서의 등장, 이미 유튜버들이 연예인을 대체하고 있다. SNS 계정을 통해서 우리는 소통 비슷한 것을 하는 듯 보인다. 전화 안부는 어렵고, 인스타 댓글은 쉽다.

문득 핸드폰을 보고 있다가, '내가 도대체 이걸 왜 보고 있나'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피곤한 가십들과 현실이 더 공포인 뉴스 기사들. 날씨도 더워지는데 업무뿐만 아니라 이런 불필요한 연결에서도 잠시 쉬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8월 휴가의 계절! 정말 오랜만에 바다에 갔다. (산도 갔다.) 짧은 휴가였지만 고작 5.5인치의 나의 시야가 1킬로미터 해수욕장만큼 길어졌다. 일부러 짧은 단편 소설책을 가져갔다. 독서라는 고상한 취미를 가진 것은 아니지만, 불필요로 골라든 책은 무용지용이었다. (그동안은 꼭 필요한 책이나 정보만 골라서 읽은 것이 피로의 원인이었다. 사업계획서 작성하기, 정부 지원사업정보, 자기계발서, 건축법규, 디자인 잡지 등등)

언제부터였을까? 소설을 안 읽기 시작했구나 싶었다. 건축잡지 말고, 법규책 말고, 행정업무 말고, 도움 되는 글 말고 그냥 관계없는 순수문학의 이야기를 읽으니 기분이 좋아졌다.

정말 오랜만에 활자를 읽었다. 꼭 필요한 정보의 글이 아니라, 흩날려 버려도 상관없는 불필요한 문장의 글을 읽으며 시간을 보내니 꽤 환기되었다.

이처럼 때로 최신의 정보기술과 건축에서 벗어나 인문학적인 지식을 쌓는 것도 새로운 시각을 얻는 데 도움이 된다. 잠시 여름방학 같은 기간을 보내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가을에도 겨울에도 짬짬이 오프라인 공간에서 휴식 시간을 가져야겠다고 다짐한다.

건축사들은 대게 마음이 정직하고 아름답다. 본인에게 주어진 공간을 더 좋은 공간으로 만들고자 하는, 사람을 향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에 매몰되어 자신을 돌보지 못할 때도 더러 있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혹은 큰 프로젝트가 종료될 때마다 건축이라는 테두리에서 벗어나 새로운 분야로의 환기가 필요하지 않을까.

시로 보는 세상

노래

- 김남주

이 두메는 날라와 더불어
꽃이 되자 하네 꽃이
피어 눈물로 고여 발등에서 갈라지는
녹두꽃이 되자 하네

이 산골은 날라와 더불어
새가 되자 하네 새가
아랫녘 윗녘에서 울어예는
파랑새가 되자 하네

이 들판은 날라와 더불어
불이 되자 하네 불이
타는 들녘 어둠을 사르는
들불이 되자 하네

되자 하네 되고자 하네
다시 한 번 이 고을은
반란이 되자 하네
청송녹죽 가슴으로 꽃히는
죽창이 되자 하네 죽창이

- 김남주 시집 '사랑의 무기' 중에서/ 창작과비평사/ 1989년

김남주는 1894년 동학농민혁명을 가리켜 "그것은 무슨 거창하고 알량한 주의나 사상도 아니며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자각"이라고 얘기하고 있다. 이 얘기는 곧 김남주 시의 요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는 대단한 독서가였고, 이론의 허점을 정확히 꿰고 있었다. 그는 실천가였고 실천을 중시하는 이론가였다. 그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전형적인 시의 형식을 완강하게 지켰고 거기서 벗어나려 하지 않았다. 안정된 형식은 메시지를 익숙한 음율로 가장 안전하게 전달한다.

〈함성호·시인〉

| 발 언 대 |

최진호 건축사
무아건축사사무소
〈서울특별시건축사회〉

즐거운 건축사의 모험

'사람이 중심되는 건축'을 하겠다는 뚜렷한 목표를 잃지 않으며, 4번의 도전 끝에 건축사 자격증을 획득하는데 성공할 수 있었다. 건축사 자격 획득 후에는 나의 목표를 실현할 사무실을 꾸려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에 부풀어 있었는데, 뜻밖에도 건강상의 적신호가 찾아왔다.

성실하게 일하면서 경력을 쌓아간다면 좋은 건축사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는 건강 이상이라는 변수로, 당황과 방황을 반복하게 됐고, 그 사이 건강은 더욱 악화됐다. 투석을 각오했지만 아버지의 감사한 뜻에 따라 신장이식을 하게 돼 두 번째 생명을 받게 되었다. 다만 효도를 해도 부족할 시기에 큰 불효를 하게 되어 마음은 무척 무거웠다. 이식받은 후 기적같이 회복하고 사무실도 오픈할 수 있었다. 그렇게 첫 프로젝트를 시작하며 행복하고 즐거운 건축사가 되기 위한 준비를 했지만, 거짓말처럼 일년 만에 건강이 다시 나빠지고 급하게 투석을 시작하게 됐다. 이 시기 중증 장애인이라는 타이틀을 얻은 채로 건축사의 삶을 이어나가기 시작했다.

늘 나 혼자 잘해서 잘 살아왔다고 자부했지만 건강을 잃고, 결정적으로 사업을 시작하고 나서는 주변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을 볼 수 있었고, 아픔마저 떠나질 않다 보니 무력하기까지 했다. 순탄치 않은 일상을 보내고 있어 멘탈은 약해질대로 약해졌지만, 필자를 생각해주는 분들을 위해 마음건강만큼은 반드시 지키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

지금은 프로젝트도 운영하고 감리업무도 무리없이 해나가며, 작은 사무소의 대표 건축사로 잘 적응하고 있다. 선·후배와 커뮤니케이션도 활발히 하면서 도움을 주고 받고 있다. 바쁘게 지내다보니 어느새 개소 3년차라는 시간을 맞이하게 됐고, 아픔에도 다소 단단해진 느낌이다.

필자는 지금의 선·후배 건축사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두 가지를 언급하고자 한다.

첫째, 어떤 건축사가 되겠다는 뚜렷한 목표를 갖고 열정을 쏟아부어 앞으로 나가는 것은 좋지만 오버페이스로 인한 건강 신호를 무시하게 되면 목표를 이루기 힘들어진다. 건축사 선·후배님들께 당부하자면 건강을 가장 우선해주길 바란다.

둘째, 우리가 하는 일은 혼자서 할 수 있는게 아니라고 본다. 필자의 경우는 특히 선·후배의 도움없이는 지금까지 오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요즘은 직원 구하기 어려운 시기이고 건축사는 점점 늘어가고 있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서로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도움을 주고 받을 수 있는 플랫폼을 구상하고 있다. 늘 혼자가 아닌 함께 발전해나감을 잊지말고 즐거운 건축사 인생을 보내시길 희망한다.

※ 외부 필자의 글은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포토 에세이

한여름 속 자연의 아름다움 윤슬

무더운 여름이 한참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숨이 턱턱 막히는 더위를 이기기 위해 시원한 물가를 찾아갑니다. 태양빛은 강렬하여 햇빛을 쬐며 움직이기 힘이 들지만 흔들리는 강물은 그 태양빛으로 인해 반짝이는 윤슬을 만들어 냅니다. 뜨겁고 강한 빛과 강의 여울이 만드는 윤슬은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춤을 춥니다. 빛과 물이 만나 다양한 반짝임으로 만드는 윤슬은 무더위를 잊게 만드는 자연이 주는 아름다움입니다.

정익재 건축사 · KN 건축사사무소

건축만평

오필록 필로그 건축사사무소

15,800부 발행 THE ARCHITECT NEWS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대한건축사협회 발행인 **석정훈** 편집인 겸 편집국장 **박정연** 인쇄인 **박장희·홍정도**

우)06643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317 건축사회관 9층 | 편집출판국 | www.ancnews.kr
안내 및 광고신청 : 02) 3416~6962~7 팩스 : 02) 3415-6899 이메일 : news@kira.or.kr

2006년 9월 9일 창간 / 2009년 5월 8일 등록번호 서울 다09707〈주간〉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대한건축사협회

LH 사태에 대한 대한건축사협회의 입장문

먼저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하여 국민 여러분께 불안과 걱정을 끼쳐드린 것에 대해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이번 LH 사태는 저가 수주 경쟁, 전문 인력 유입 부족, 안전 불감증과 같은 건설현장 전반의 문제와 잘못된 관행 등 총체적 부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발생한 결과입니다. 무엇보다 이번 사태의 직접적인 원인은 정부의 발표대로, 주차장 무량판 시공 중 기둥과 슬래브(지붕층)를 연결해 강도를 높이는 역할을 하는 전단 보강근(철근)이 설계 및 시공과정에서 누락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국민안전이 최우선인 만큼,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만에 하나 있을지 모르는 안전문제에 철저히 대비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대한건축사협회는 먼저 전문가단체로서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한 올바른 정보 제공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정부의 건축정책 결정에 역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LH 사태와 관련하여 건축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왜곡보도 및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고, 구조분야 분리발주 요구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 위해 다음과 같이 입장문을 공표합니다.

첫째, 건축설계를 함에 있어 '구조'는 건축의 가장 중요한 속성으로 꼽히는 본질로서 건축과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사실상 한 몸과도 같아 건축설계와 구조는 따로 구분해 이원화된 체제로 갈 수 없습니다.

- 건축의 3요소가 '구조, 기능, 미'인 것처럼 실제 건축현장에서 이 모두가 조화롭게 어우러져야 건축물의 안전과 성능, 품질이 확보될 수 있습니다. 특히 구조는 공간의 효용성과 공사비용, 안전도 등을 좌우하는 절대적 요소로 건축설계와 떼려야 땔 수 없는 한 몸과도 같습니다.
- 건축의 뼈대가 되는 구조디자인과 구조계획은 안전하고 경제적인 측면을 고려해 건축설계자가 건축디자인 과정에서 1차적으로 결정합니다. 그런 까닭에 건축구조기술사의 확인 과정을 거쳐 건축설계자가 최종 결정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 건축과 구조는 협업의 관계이며 분리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설계를 건축사가 독점하고 구조를 하청이라 표현하는 것은 의사가 외과수술 과정에서 외과 의사 이외 마취과 의사, 방사선과 의사가 같이 협업을 하는 것을 하청이라 하는 것과 같습니다.

둘째, 이미 건축법령상 구조계산과 구조도면 작성 업무는 건축구조기술사가 작성하도록 보장돼 있습니다.

- 6층 이상인 건축물 등은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하며(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 건축구조기준 총칙(KDS 41 10 05 : 2019)에 따라 책임구조기술자는 건축구조물의 구조설계도서의 작성, 시공, 시공상세도서의 구조적합성 검토, 공사단계에서의 구조적합성과 구조안전의 확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관계법령에서 건축구조기술사의 업무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셋째, 2022년 12월 기준 등록건축사가 18,872명인데 비해 건축구조기술사는 1,204명으로 건축사의 6.4%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건축구조기술사 인력으로는 부실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축구조기술사 수를 대폭 확충하고 부족한 구조인력의 대체를 위한 '인정 건축구조건축사 제도'가 도입되어야 합니다.

- 법·제도상 구조적 전문지식이 필요한 책임분야가 늘고 있는 데 비해 건축구조기술사 부족으로 부실 점검·관리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최근 시공 사례가 많아진 무량판 구조의 경우 설계단계에서부터 무게를 제대로 버틸 수 있는지 구조계산을 면밀히 해야 하지만, 이를 수행하는 건축구조기술사는 지난해 기준 1,204명에 불과합니다. 설계를 총괄하는 건축사가 18,872명인데 비해 건축사의 6.4%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 특히 현행법상 필로티 구조 건축물과 특수구조 건축물의 경우 건축구조기술사가 의무적으로 공사현장을 확인해야 하지만, 구조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에서 실제 공사 일정 지연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이 문제는 정부 지정 교육기관에서 일정 기간 구조교육을 이수하면 구조 관련 업무를 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인정 건축구조건축사 제도'를 도입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넷째, 현재 하나의 건축물을 안전하게 설계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과 시간이 다 무시되는 형편으로, 부실시공에 따른 사고가 발생하는 이유 역시 이와 직결돼 있습니다. 건축이 국민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만큼 현실에 맞게 건축설계 대가기준을 정상화해야 합니다.

- 이번 사태는 수많은 원인이 상호작용하며 드러난 결과이지만, 건축 현장의 고질적인 문제인 저가 경쟁이 본 사태의 본질 중 하나입니다. 최저가, 덤핑이 판치는 시장에서 안전한 설계, 건축물은 결코 나올 수 없습니다. 덤핑 수임과 최저가 낙찰 관행이 지속돼 취약한 노동환경으로 인해 건축 전공 졸업생들의 인력 이탈로 이어지고 있는 만큼, 젊은 인력이 유입될 수 있는 기반을 다져야 하며, 저가 설계는 부실 설계로 이어져 시공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바 현실에 맞게 건축설계비가 정상화돼야 합니다.

2023년 8월

대한건축사협회